



다시 배움과
Learning and Hope Anew
희망에
대하여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6th SEOUL YOUTH CREATIVITY SUMMIT & FESTIVAL

결과 보고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2 :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2014. 9. 26~9. 28 @haja center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하자센터
후원	연세대학교, 영등포구,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JP모간, 한국암웨이
협력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도서출판 민들레 방물단,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야기꾼의 책공연
문의	070-4268-9910(홍보) 070-4268-9917(프로그램 협업)
정보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http://jagongong.net/summit2014/ 하자센터 www.haja.net
프로그램 신청	아카이브하자 http://archive.haja.net/summit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결과 보고서

감사의 글

Part 1 어울림 축제

개막식
폐막식
서밋 나눔부엌
서밋 달시장
사람책을 만나다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글로벌시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벌시 연수
타일벽화 워크숍 - 희망을 담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
서밋 달마당

Part 2 재난사회의 교육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이 시대 교육포럼 2 - 포스트후쿠시마 시대의 학습과 성장
이 시대 교육포럼 3 -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서밋강연 - 공동체 다시 만들기 : '새로운 마을'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서밋강연-격차에 놀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Part 3 심포가 있는 교육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이 시대 교육포럼 1 - 전환학년제, 심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이 시대 교육포럼 4 -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비진학포럼 - 비진학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이', 새로운 상상과 확장

Part 4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협업 및 부대행사 - 드로잉 프레스
협업 및 부대행사 - 리얼타임 그래퍼

감사의 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1994년 작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제가 <Legends of Fall>이라 ‘몰락’이라는 뜻을 지닌 ‘Fall’을 ‘가을’로 오역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작품이죠. 대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삼형제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육체와 영혼이 무너져가는 이야기로 ‘순수의 몰락’이 이 영화의 테마입니다. ‘Fall’도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도입부에 이런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명료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나 혹은 전설이 된다.”

제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버텨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현실의 암울한 무게에 곧 짓눌리고 맙니다. 삶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세상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하자센터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로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서밋에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덴마크, 홍콩, 후쿠시마, 밀양 등 국내외 여러 현장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분들이 초대되었고, 공교육과 대안교육 교사들이 한 자리에서 비진학 청소년과 마을교육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여러 경계들을 넘어서 ‘창의적인 공공지대(creative commons)’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서밋은 ‘어울림 축제’, ‘재난사회의 교육’, ‘쉽표가 있는 교육’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그 안에 개막식, 워크숍, 포럼, 대담, 강연, 사람책, 달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 창의성을 논하고, 축제를 벌인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드리우는 위험 사회와 만성화되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넓은 시야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들로 생활세계를 함께 빚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과 놀이와 공부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마당이 곳곳에 생겨나야 합니다.

이번 서밋은 그런 도전과 실험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상상력을 풍성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공감과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연대’ 속에서 보람 있는 일거리들을 찾고, 공통의 과제를 위해 행동하면서 희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며 지금 이 자리를 통찰하는 관점과 개념들을 배웠고, 학교 시스템에서 적정 기술에 이르기까지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탐색해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진지하게 참여해서 생각을 나누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막식에서 ‘이야기꾼의 책공연’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마련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봉우리’라는 노래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화상과 꿈을 몸짓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가사의 일부를 다시 음미해봅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곤 생각질 않았어 (...)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작은 고갯마루를 최고의 봉우리라고 착각하고 악착같이 기어오르는 모습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삶인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봉우리가 될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흥미롭게도 ‘서밋(summit)’에는 ‘봉우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상(頂上) 회담’ 같은 추상적인 용법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요. 창의서밋은 어떤 ‘정상’을 의미할까요. 주최자인 저희 하자센터는 최고의 창의적 에너지가 모아지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연결되며 시너지를 일으키는 허브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창의서밋이 추구하는 높이는 외형적인 위세가 아닙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존재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동의 삶을 다채롭게 창조해가는 탁월함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하자센터가 최선을 다해 마련하는 행사지만, 매번 그 실속을 채워주시는 것은 참가자들의 기운과 정성입니다. 준비가 많이 허술했는데도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 나눠가진 창의의 씨앗을 저마다의 현장에서 뿌려 가꿔가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거기에서 뻗어 나온 뿌리나 싹 또는 줄기나 열매를 내년도 서밋에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찬호 (하자센터 부센터장)







PART 1 어울림 축제

개막식

폐막식

서밋 나눔부엌

서밋 달시장

사람책을 만나다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글로벌비시(Globish)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벌비시 연수

타일벽화 워크숍 - 희망을 담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

서밋 달마당

배움과 희망을 찾는 3일 여정의 기분 좋은 시작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4:00 ~ 15:3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하하홀
- 참여인원 | 180명
- 사회 |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김현우(우니, 운영지원부)
- 공연 | 쿨레칸(Koule Kan), 페스테자,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 강연 |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국립대 태평양아시아학부 교수),
켄다 유지(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
쇠렌 라운비에르(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 교장)

■ 기획 |

개막식은 창의서밋의 시작을 알리면서 사흘 동안 모두가 공유할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이다.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막식은 희망을 만들어 갈 배움을 함께 고민하며 앞으로의 네트워킹을 만들어갈 국내외 친구들을 확인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논의 내용들을 공연과 스피치 등을 통해 간명하게 드러내는데 집중했다.

■ 진행 |

시작은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맞춰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아프리카 퍼포먼스 그룹 ‘쿨레칸’의 공연으로 오프닝을 장식했다. ‘쿨레칸’의 멤버인 엠마뉴엘 사누와 아미두 발라니는 하자 작업장학교의 아프리카 댄스 강사로 활동하며 작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이번 서밋에서 준비한 공연은 다소 어두운 느낌에서 시작하여 점차 격정적인 춤으로 변하면서, 어둠에서 희망의 작은 빛을 발견하는 스토리를 담고자 했다.

개막식의 메인 하이라이트는 세 명의 키노트 스피커가 선보인 짧지만 흥미로운 스피치. 각각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에서 온 강연자들은 앞으로 3일간의 여정 동안 자신이 전달할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주려 했다. 이후 3일에 걸친 서밋 전체 일정 안내 및 개막 선언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하자작업장학교의 브라질 퍼커션 그룹인 페스테자(FESTEZA)의 공연이 이어졌다. 개막식을 열어 주었던 ‘쿨레칸’도 페스테자의 공연에 다시 합류해 모든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밋 사흘 간의 일정을 알리는 완벽한 시작이었다.

▣ 공연 1-1 | 쿨레칸, 엠마누엘 사누 ‘보이지 않는 손 - la main invisible’

난관 끝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탱해 주듯, 빛에서 어둠이 나오고, 깊은 절망에서 미광이 발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들, 행운과 불운, 선과 악, 삶과 죽음 등, 우리가 알아차릴 사이 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까? 단지 이 모든 것이 다만 우연의 산물에 불과한 것일까?

▣ 공연 1-2 | 쿨레칸, 아미두 발라니 ‘지기야 - digiya’

‘지기야’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 서밋 트레일러

▣ 공연 2 | 이야기꾼의 책공연 ‘봉우리’

▣ 개막선언

▣ 개회인사 및 내빈소개



▣ 스피치 1 | 테사 모리스-스즈키 / ‘위기에서 창의로 : 재난의 시대에 정치적인 것을 다시 만들기’

키노트 스피커를 맡은 테사 모리스-스즈키 호주국립대 교수는 연민의 위기와 정치의 의미라는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90년대 초반, 민주주의와 자유세계의 승리 이후 세계 경제성장 과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경제가 확산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에 침투하면서 나, 가족, 지역사회에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점차 없어졌다. 여기에 빈부격차와 노동자 계층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면서, 빠른 사회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도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연민과 동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지적한다. 난민, 소수민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 대상은 누구나일 수 있다. 무한한 것, 나눌수록 커지는 것으로서의 연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자칫 냉소주의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정치’에 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의 세계는 민주주의와 그렇지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러 요소가 하나의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때로 예상치 않은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동북아 풀뿌리 운동 등 생활정치에서 보듯,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함께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일본 토와와 모치즈키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내부 전통에서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나의 자율성과 당신의 자율성이 곧 우리 마을의 자율성이라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정부 차원의 자유세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자유세계도 존재한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이라는 작은 차원에서 새롭게 자유를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작은 자유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강연이었다.

▣ 스피치 2 | 겐다 유지 / 위험사회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

두 번째로 무대에 선 겐다 유지 교수는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희망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희망이 있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 등 희망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희망학이라고 한다. 희망학의 방법론은 희망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분석하거나 희망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구해서 읽어보는 한편으로, 3.11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인 이와테현(岩手県) 가마이시(釜石市)를 2006년부터 수차 방문하고 2009년부터는 주민들의 행복도가 전국 제일이라고 알려진 후쿠이현(福井県)도 방문해 현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스피치에서 그는 연구과정에서 아마도 희망은 네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며 그 네 개의 기둥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Wish, 일본어로 하면 마음, 기분, 소원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희망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기둥은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 영어로 Something이다.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뜻하며, 희망에는 크고 작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세 번째 기둥은 Come True, ‘실현’이다. 실현하기 위해 밟아나가야 할 길이나 실천해야하는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다. 설령 그 실현이 어렵다고 해도 다가갈 수는 있다. 어떻게 하면 바람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 그 방법을 학습하거나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Action, ‘행동’이다. 아무리 목표를 정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희망을 이룰 수 없다.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거나 불안해지거나 괴로울 때도 있다.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희망의 네 가지 기둥인 마음(Wish), 무엇(Something), 실현(Come True), 행동(Action)을 인상깊게 설명하기 위해 앞 글자인 W, S, C, T, A를 큰 제스처로 보여주며 관객들에게도 직접해보자고 제안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 스피치 3 | 쇠렌 라운비에르 / 배움에 적대적인 시대에 배움은 어떻게 가능한가?

마지막 강연자인 쇠렌 라운비에르 IPC 교장은 직접 학교 곳곳을 누비며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먼저 공개한 뒤 무대에 등장,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룹 슈퍼트램프(Supertramp)의 '로지컬송(Logical Song)'. 삶이 경이롭고 기적 같다고 느끼던 어린 아이에게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기존 교육을 빗대는 내용이다. 그는 1844년 계몽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덴마크 시민대학(Folk high School)과 본인이 몸담고 있는 IPC에 대해 주로 소개했다. 그는 포크하이스쿨에 대해 모든 인간은 배움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많은 학생, 교사들이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다. 문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며 덴마크 교육부의 승인 및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학교별 고유성을 인정받으면서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 포크하이스쿨 중 유일하게 외국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IPC의 경우 등록할 시점에 만 17.5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영어실력을 갖춰야 하고, 학교의 핵심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입학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학생들은 직접 다섯 개 영역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데 무엇보다 항상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생학습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정면 돌파하는 능력은 일생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면서 무르익는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력하는 능력, 당장 스스로에게 득이 되지 않지만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러한 기술은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과 스스로의 행동방식을 통찰할 수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Idea (아이디어), Place (공간), 그리고 Community(공동체) 즉 IPC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IPC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강연이었다.

글 | 홍성은 (두부, 학교운영팀)

7번째 만남을 기약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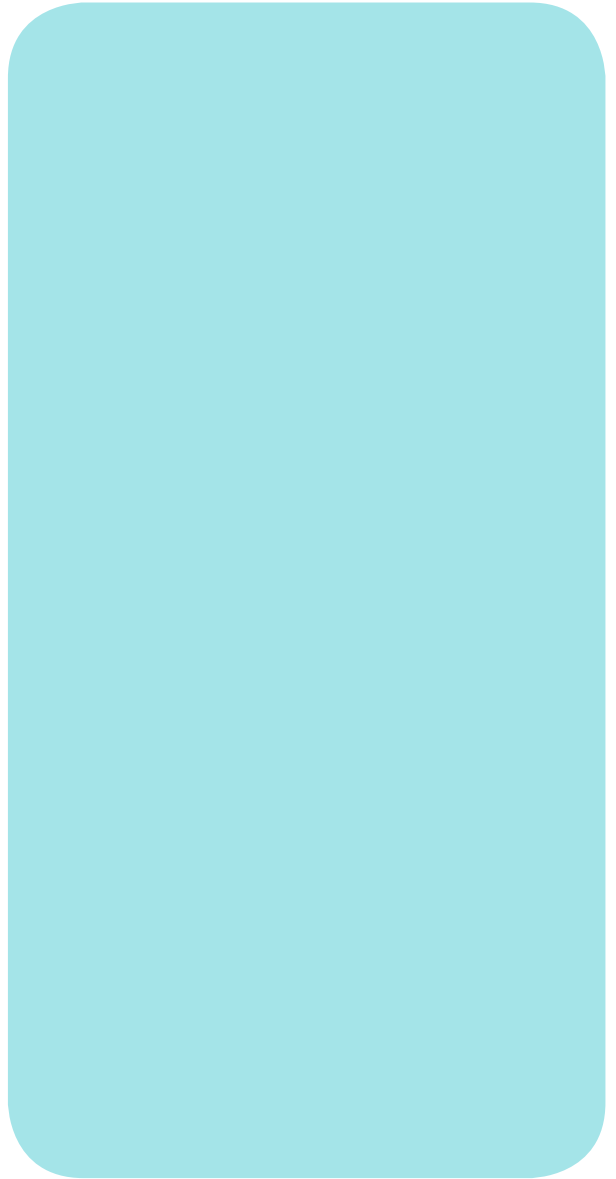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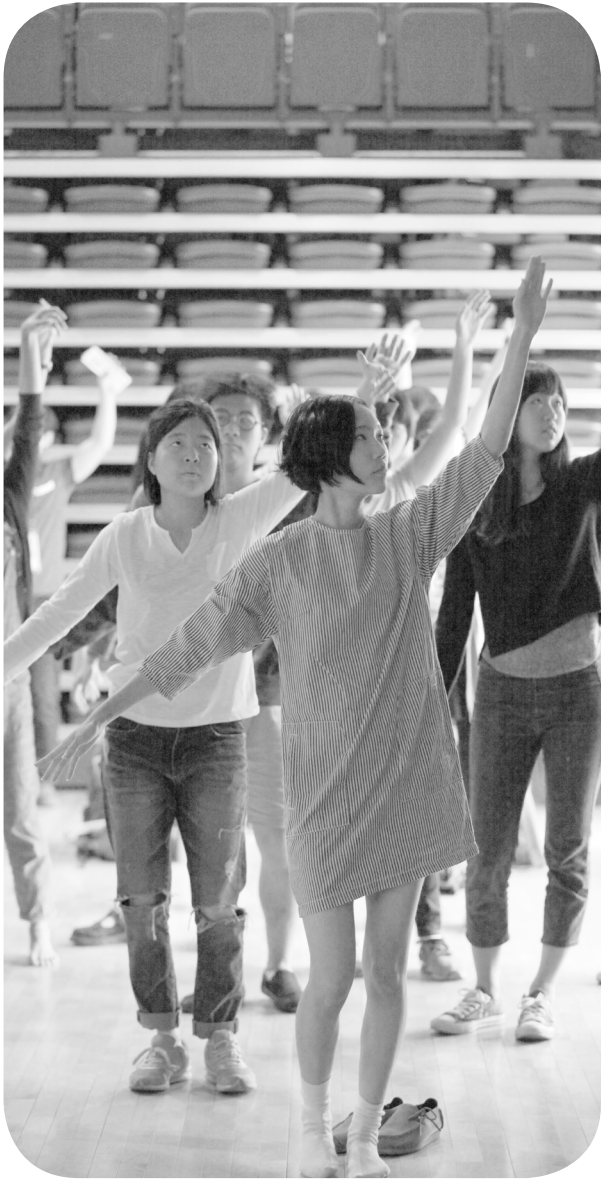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일요일 13:30 ~ 14:3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 참여인원 | 100명

■ 기획 |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3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창의서밋 스태프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일정을 회고하고 내년 서밋을 기약하며 유대관계를 다지는 네트워킹 행사이다.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의 청소년 밴드 유자청이 여는 공연을 선사했고 교육, 협력기획, 허브, 공방, 학교운영, 하자작업장학교, 운영지원부 등 하자센터 각 팀 판들이 그간의 진행 및 성과에 대해 회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3일 동안의 여정을 찍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감상한 뒤 멀리서 찾아와 3일간 이야기와 식사를 나누며 일상을 함께했던 해외 게스트들(후쿠시마 하자, 겐다 유지, 테사 모리스-스즈키, 홍콩창의력학교)이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찬호 하자센터 부센터장의 폐막 인사에 이어 전 참가자가 훌라춤을 추며 하늘과 땅, 인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되었다.





첫 날, 첫 끼니를 나누는 공동의 식탁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2:00 ~ 13:00
- 장소 | 신관 1층 허브카페, 중정
- 참여인원 | 150명

■ 기획 |

하자허브에서는 매주 수요일 나눔부엌을 열어, 반찬을 하나씩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마을밥상공동체를 통해 우정과 환대의 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평상시 수요 나눔부엌에는 하자 내외부 주민들 50~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일의 점심밥상으로도 확대되어 거의 매일 20~30명이 함께 밥을 먹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군가를 하자마을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가장 낮은 문턱으로 서밋 나눔부엌을 준비하게 되었다. 공간 배치는 기존 나눔부엌이 이루어지는 허브카페 및 중정을 활용하였다.



■ 진행 |

나눔부엌은 준비과정에서 정성과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 외에 판돌 및 주민들이 함께 손을 보태어 주었다. 이번 서밋의 상차림은 주먹밥, 샐러드, 곶절이, 전, 국, 과일, 매실차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날 저녁에 손을 보태기로 자원한 판돌과 허브 주민들이 모여 주먹밥을 만들고, 또 당일 이른 아침에도 모여 전을 부쳤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을잔치의 풍경을 연출했다.

■ 배움 & 희망 |

서밋 첫 날의 손님들을 환대하는 나눔부엌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나 사전에 예상한 인원 및 예산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나눔부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간 어떻게 진행, 확장되어 왔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지 못해 별다른 의미 전달 없이 식사를 마치게 된 점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제5회 창의서밋부터 2년째 서밋의 첫 날을 여는 잔치 자리로서의 나눔부엌은 하자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마을의 상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해 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글 | 변세경 (나무, 허브팀)



기억을 간직하고, 다음을 약속하다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7:00 ~ 21:00
- 장소 | 하자센터 앞마당
- 참여인원 | 4천여 명
- 진행 | 하자센터 협력기획팀, 방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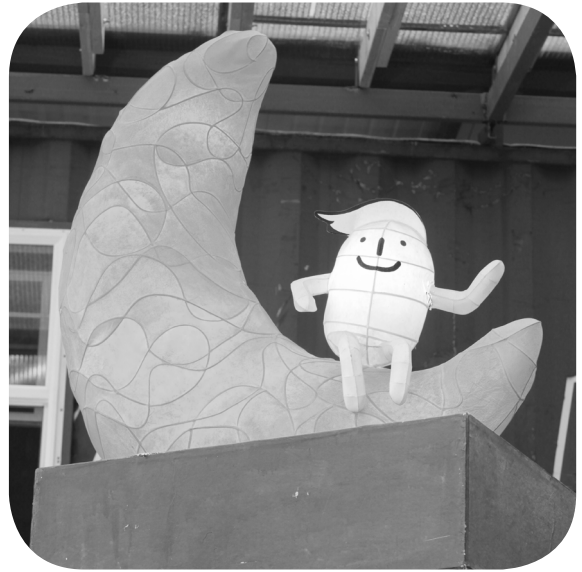
■ 기획 |

창의서밋은 2009년 프리서밋으로 출발할 때부터 시대적 의제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설정되었기에 컨퍼런스나 세미나, 포럼 등 진지한 형태의 행사만이 주는 아니다. 이와 함께 소박한 먹거리와 흥겨운 놀이,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며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기획된다. 올해는 이들 행사들을 ‘어울림축제’라는 섹션으로 구분지었다.

이 섹션에는 9월 26일 오후 2시 창의서밋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참여자 모두가 밥 한 끼를 함께하는 나눔부엌,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책을 만나다’ 등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또한 적정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자립주택의 건축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와 태양광 패널 제작 워크숍, 타일 조각을 모아 공공 공간을 장식할 벽화를 만드는 타일 모자이크 워크숍, 서밋의 취지를 손에 담아 직접 생필품을 만들어 보는 ‘달마당’ 등 워크숍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 섹션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역시 마을, 사회적경제 관련 그룹들이 총출동하는 마을장터 ‘달시장’일 것이다.

대표적인 서울시내 대안 마을장터로 자리잡은 ‘달시장’은 올해로 4년째 영등포구, 서울시, 민간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하자센터가 주관해 왔으며 2014년의 경우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장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6년째 9월~10월 중 열리는 창의서밋 개막일과 개장일을 맞춰온 것은 2012년부터이며 이번 2014년은 9월장을 함께 하게 되었다. 포럼, 워크숍,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혁신적인 국내외 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논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창의서밋은 매회 4~5천여 명(연인원)의 참여자를 기록하는 큰 행사인 만큼 역시 매회 3~4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달시장과 함께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합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올해 제6회 창의서밋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의 비극 등 ‘재난 사회’ ‘위기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과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도모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위기에 빠진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마을살이’를 지향하는 달시장과 창의서밋은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었다.



달시장의 경우 2014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다세대에 걸친 마을의 모든 주민이 지혜와 재능을 교환, 공유하며, 일, 배움, 놀이 등 일상을 함께하는 '마을살이'를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슬로건도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 초기부터 일회용품 대신 수저와 그릇 세트를 대여하고, 자전거 발전기나 태양광 건조기 등을 소개하는 등 사회적경제는 물론 적정기술(생활기술), 대안에너지, 지역 연계 진로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왔던 마을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에 창의서밋과 맞는 지점이 많았다.

이에 9월 달시장은 창의서밋의 올해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2 :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와 맥락을 같이 해 '배움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마을장터'로 부제를 설정했다. 기존의 공동체 기반 섹션과 프로그램을 확대, 업그레이드해 달시장을 찾는 참여자들이 서밋의 의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하게 구성해 보았다.

■ 진행 |

달시장은 매회 하자센터 전체의 기자재 및 인원이 동원되는 큰 행사로 꼽힌다. 9월 달시장은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창의서밋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기획은 물론 현장 설치 및 진행, 철수 등 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상 당일 아침부터 시작하던 달시장 사전준비를 개장 전날부터 시작했다. 하자마을은 물론 인근 다른 센터들의 양해를 얻어 주차장 공간을 모두 비우고 가능한 큰 설비들은 미리 세팅한 가운데 개막일을 맞은 것이다. 반면 개막식 당일 달시장의 메인섹션 중 하나인 마을놀이마당은 주요 장소인 신관 중정에서 나눔부엌이 열리는 관계로 식사가 끝난 오후 1시부터 서둘러 세팅을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달시장 관련 스태프들은 기존 달시장 때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늦게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일사불란한 진행으로 매끄럽게 서밋 첫 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달시장을 구현할 수 있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아 창의서밋의 취지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섹션인 '마을놀이마당'이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영등포 주민작가가 진행하는 봉숭아 물들이기와 손작업 워크숍, 청년 놀이활동가들이 함께하는 골목놀이 등이 부각되었다. 다세대가 어우러지는 놀이터로서 다양한 흙을 활용한 흙놀이터, 영유아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생활워크숍,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단체놀이 등도 소개되었다.



달시장의 메인섹션인 달마당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고루 즐길 수 있는 풀피리 만들기, 천연 립밤 만들기 등 손작업/재활용 워크숍 등을 부각시켰다. 또한 우리집 애물단지라 누군가에게는 요긴하게 쓰일 기회가 되는 물물교환 장터와 지역 주민들이 두루 참여하는 벼룩시장, 우산 등 집안 살림살이를 고쳐주는 마을수리소도 어김없이 배치했으며 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을기술센터 핸즈의 적정기술 워크숍에서는 태양광으로 휴대폰 충전 도구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해 지속가능한 삶, 생태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전달했다.

이벤트 면에서는 추석을 앞둔 8월 장에서 지난 9월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소원의 달'이 다시 한번 등장해 마을의 정취를 더해 주었고, 아이리시 밴드 '여자 둘 피리피그'와 재즈 뮤지션 '새나'의 가을빛 묻어나는 음악에 꼭지점 댄스처럼 몇 가지 간단한 동작만 배워서 모두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라인댄스 워크숍까지 포진시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음악과 춤에 빠져드는 축제 무드가 고조되었다. 하자작업장학교 청소년들이 깜짝 이벤트로 선보인 카포에이라 시연 퍼포먼스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달시장의 열기를 다음날로 이어가기 위해 달시장 기획팀에서는 다음 날인 9월 27일 '모두, 함께' '스스로, 손으로'라는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손작업 및 적정기술 워크숍들을 선보이는 '서밋 달마당'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관 1층 중정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달시장과 함께 포스터, 사이트,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햇빛 건조기 만들기, 폐 현수막을 이용한 에코백 만들기, 코프개 수세미 만들기 등 환경을 생각하는 손작업으로 배움의 의미를 풀어보는 워크숍들을 준비했다.

'재난사회의 교육', '쉽표가 있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창의서밋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 마을장터 달시장이 만난 9월 26일의 가을밤은 대략 4천여 명의 마을주민 및 마을, 사회적경제 관련 그룹들, 그리고 서밋 참여자들이 어우러져 성황을 이루었다.

■ 배움 & 희망 |

서밋 취지에 맞춰 기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이긴 했으나 서밋과 달시장의 연계를 탄탄히 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특히 기존 달시장 참여자들에게 서밋의 취지를 알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달시장 개장 시간인 오후 5시에는 이미 대부분의 서밋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데다 단 4시간만 반짝 열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마을장터의 특성상 관련 리플렛 등 홍보물들을 비치했으나 찬찬히 소개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달시장을 찾는 대중에게 창의서밋을 알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달시장과 서밋과의 연계에서는 단순 홍보보다는 사전 기획 프로그램이 적합한 듯 하며 이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마을놀이마당' 스태프들의 포럼 기획 및 진행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암웨이와 하자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 창의인재 육성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콘텐츠가 구현되는 '마을놀이마당'은 다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하자센터 관련 스태프와 놀이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룹인 청년 놀이활동가가 함께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하자와 협업해온 청년 놀이활동가들은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본관 1층 마을서당에서 열린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이' : 새로운 상상과 확장'에서 발표했으며 포럼 기획과 진행도 함께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달마당에서는 메이커 그룹 '뽕뽕이 공작'과 연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뽕뽕이 등지 공작'과 '라인 트레이서 체험 워크숍'을 선보이기도 했다. 달시장 현장에서의 서밋 연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달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포럼이나 세미나, 학습 모임 등 서밋 안의 기획으로 풀어내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새로운 배움을 담은 ‘책’읽기



-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13:00 ~ 15: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참여인원 | 45명
- 사람책 | 김영자(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상동면 총무),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홍이(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태영(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기획 |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한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남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시도 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사람책’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 창의서밋의 사람책에서는 제도권 교육의 경계를 넘어, 자신에게 맞는 배움과 성장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초대해 재난 시대 이후 진정한 교육과 배움이란 무엇인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 진행 |

▣ 준비과정

사람책 선정 | 서밋 주제에 맞추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초점을 두고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일반적인 경로의 학습과 진로를 따르기 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배움과 그 필요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총 4권의 사람책을 선정 하였다.

사람책 편집 | 사람책 선정 이후에는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 사람책의 특성상 독자와 주제에 맞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사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편집 과정에서 정리된 목록은 독자들의 사람책 선택 기준이 되며 사람책도 이 목록에 맞춰 당일에 나눌 세세한 책의 내용을 편집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람책 편집에서는 멀리 밀양에 계신 김영자 총무님을 제외한 세 분의 사람책과 직접 만나, 창의서밋과 사람책의 취지와 주제를 설명하고,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 목차를 편집

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분 모두 사람책에 처음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과 인터뷰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독자 모집 | 독자가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진행 의도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 사람책 당 5~6명으로 독자수를 제한했다. 하자 아카이브를 통한 일반 참가자 모집 외에 하자네트워크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실무 준비 | 기획단계에서 고려했던 장소는 본관 2층 999클럽이었으나, 사람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공간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예정했던 창의서밋 일정들이 일부 변경되면서 행사 당일 본관 1층 마을서당으로 옮겨 진행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였다.

▣ 당일 진행

사람책 안내 | 사전 신청했던 사람들 외에, 당일 신청자가 추가로 참여했다. 시작은 EBS의 다큐멘터리 '휴먼 라이브러리'를 함께 시청하면서 사람책의 의미와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참석한 사람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사람책 소개 |

사람책 1

웃으며 싸우며 함께 잘살자 - 밀양을 살다
김영자(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상동면 총무)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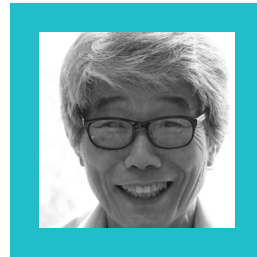
밀양 여수마을로 시집와 35년여를 살았다. 부녀회장 경력만 11년으로 씩씩한 여장부 같은 인상이 호감을 준다.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행동함에 주저함이 없으나 속내에는 소녀 같은 감수성도 깃들여 있다.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이들 중 한 명이다.

목차

- 우스갯소리를 잘하던 여자아이
- 집안을 일군 며느리 5번
- 예쁘게 단풍 드는 산이 철탑 장식으로 :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싸움

사람책 2

30원 가지고 가는 인생
박홍이(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서문

한때는 물리학과 낙제생이었으나 유학 후 물리학 박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국제 과학학술지 SCI에 반도체 실험과 관련한 논문 327편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수영선수이기도 했던 그는 검도 5단, 공수도 4단의 유단자이다. 하루 책 세 권을 한꺼번에 읽는 독서광이며 수채화를 즐겨 그린다. 나눠주기를 좋아해 책, 죽도 등등 눈에 띄는 대로 필요하다 싶은 사람에게 마구 준다. 검도 복장을 한 모습이 가장 멋있는, 간간하고 부드러운 물리학자.

목차

- 싸움꾼 박홍이
- 퇴학, 낙제, 군대, 유학
-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배려와 양보

사람책 3

풀뿌리 단체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이태영(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서문

어렸을 때 야마기시즈 실현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개인이 변하지 않고도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삶의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시스템이나 제도만 변한다고 사회가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어릴 적부터 많이 학습하며 지역과 마을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YMCA와 생협 그리고 체화당 등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활동과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

목차

-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법 = 내가 자란 무리
- 머리 무거운 이태영의 구의원 후보 이야기
- 모이는 힘으로서의 정치

사람책 4

지식이 아니라 욕망이 생기게 하라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서문

대학 재학 중이던 1983년 행글라이더를 타다 불의의 사고로 1급 지체장애를 입었고, 실의에 빠져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장애를 입은 자신의 처지와 장애인들에게 무심한 현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989년부터 장애인복지운동을 시작했다. 훈시적 교육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함께 동참하는 교육을 위해 1993년 노들장애인야학을 설립했으며, 이 곳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살아가고 있다.

목차

- ‘자살 여행’ 택시비를 마련하기 위한 성서 백독 아르바이트
- 장애인들이 살기에 너무나 불편한 세상, 이 남자를 투사로 만들다
- 우당탕탕 노들야학, 좌충우돌 봉숭아 학당

▣ 사람책의 리뷰 |

사람책의 소감 | 네 분 다 사람책으로는 처음 참여하는 터라 개인의 이야기를 이번 서밋의 주제에 맞추어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상당히 많았다. 다행히, 진행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점차 안정되고, 독자들과의 교감이 이뤄지면서 사람책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 다만, 처음 참여하다 보니 전반적인 시간 배분에 아쉬움을 느꼈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상 총 1시간 30분 여의 진행시간은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사람책으로 참가한 네 분은 본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시간이 짧은데다 안배를 하지 못해 독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다.

독자의 소감 |

- 직접 싸우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으니 생생한 느낌이 들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이니 신경을 쓰고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 언론에서만 보다가 직접 말로 들으니, 가슴에 더 와 닿았다.
- 책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다.
- 너무나 좋은 강의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마음이 파스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게 되어서 좋았다.
- 정치가 대중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 지역정치에 대한 열정을 느꼈다.
-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우리 할아버지를 닮으셔서 더 편안했다.
-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시고 잘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목표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배움 & 희망 |

사람책으로 참가하신 네 분은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각자가 속한 현장에서 자신들의 배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람책의 생생한 경험은 주 참여자였던 청소년 독자들에게 배움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책의 내용이 '배움'이라는 키워드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분 모두 사람책의 경험이 거의 없는 탓에, 작성했던 목록과는 다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 간혹 엿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람책과 독자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각자 다름을 이해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소통방법으로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자 안에서 정기적인 사람책의 기획과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하자의 방향과 맞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가 이후 숙제로 남겨졌다. 이 부분은 마을책방 등 책을 매개로 하는 공간의 활동과 맞물려 내부 논의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글 | 곽영선(풍뎅, 하자마을책방)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이유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0:00 ~ 12:00
- 장소 | 본관 앞 살림집
- 참여인원 | 12명
- 진행 |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박동녕, 이재우, 이지훈, 장덕균, 한주엽)
- 기획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희생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와 지구 문명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요로운 삶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었는지 엑스레이처럼 명료하게 보여준 하나의 시대적 상징이었다. 하자작업장학교 청소년들은 재난 이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삶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작했다. 당시의 성찰을 기반으로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은 원자력 발전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생산/분배하고, 시민들이 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또 다른 대안적 방식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에서는 자립과 공동체에 기반해 삶의 필요한 요소인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는 '적정기술'을 도시에서 적용하는 시도들을 해왔다.

그간에는 난로와 화덕, 바이오디젤과 태양열 온풍기 등의 고효율, 리사이클링, 자연에너지 등을 주제로 집안 살림을 꾸리는 적정기술을 배우고 실험해오다가 2014년에는 '살림집'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의 적정기술 실험 성과를 적용해 에너지자립하우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5월에는 에너지와 목화농사를 통해 후쿠시마 지역 재생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오펜토썬'(후쿠시마 이와키 시 소재)이라는 그룹을 초청해 자가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작업을 통해 태양광 셀을 이어붙이고, 라미네이터를 사용해 하나의 패널로 압착하는 기술을 배웠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생산되는 만큼 마음껏 쓰고 사용료를 내는 기존의 관념을 뒤집어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 적정기술로서의 태양광 발전패널 만들기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번 창의서밋 적정기술워크숍에서는 기존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 청년들이 후쿠시마 '오펜토썬' 그룹에게 사사 받은 방식대로 태양광 발전의 기초적인 원리와 그 취지를 전하고, 태양광 셀과 리본, 인두, 라미네이터 등 재료와 작업 내용에 대해 각 공정별로 설명했으며 이후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태양광 패널을 완성해보려 했다.

■ 진행과정

- ▣ 적정기술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론 및 취지 강의 (20분)
- ▣ 태양광 셀 취급방법 및 인두납땀 연습 (10분)
- ▣ 두 그룹으로 나뉘어 셀 34장 이어붙이기 작업 (60분)
- ▣ 전력 계측 실험과 라미네이팅 준비 작업 (10분)
- ▣ 유리와 EVA시트, 테프론 시트 태양광셀을 하나의 패널로 라미네이팅 작업 (30분)
- ▣ 태양광 패널의 전선 연결과 프레임 연결 작업 (20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총 120분 워크숍으로 계획하고 진행했다. 초반 강의와 셀 붙이기 작업 내용 설명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나 실제 참가자들이 직접 연습부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그 뒤의 과정도 두 시간이라는 전체 러닝타임 안에서 최소한의 소요 시간으로 분배해 놓았던터라 결국 패널 프레임을 붙이는 마무리작업까지 완수하지 못한 채로 워크숍이 끝났다. 이전에 진행했던 다른 태양광 패널 워크숍에서도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심자들의 경우 패널 만들기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두 시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이미 지역에서 적정기술 모임을 진행하거나 단순 발전이 아니라 축전까지 염두에 두며 실제 적용을 생각하는 경우, 또 적정기술로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연계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친환경,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참가한 이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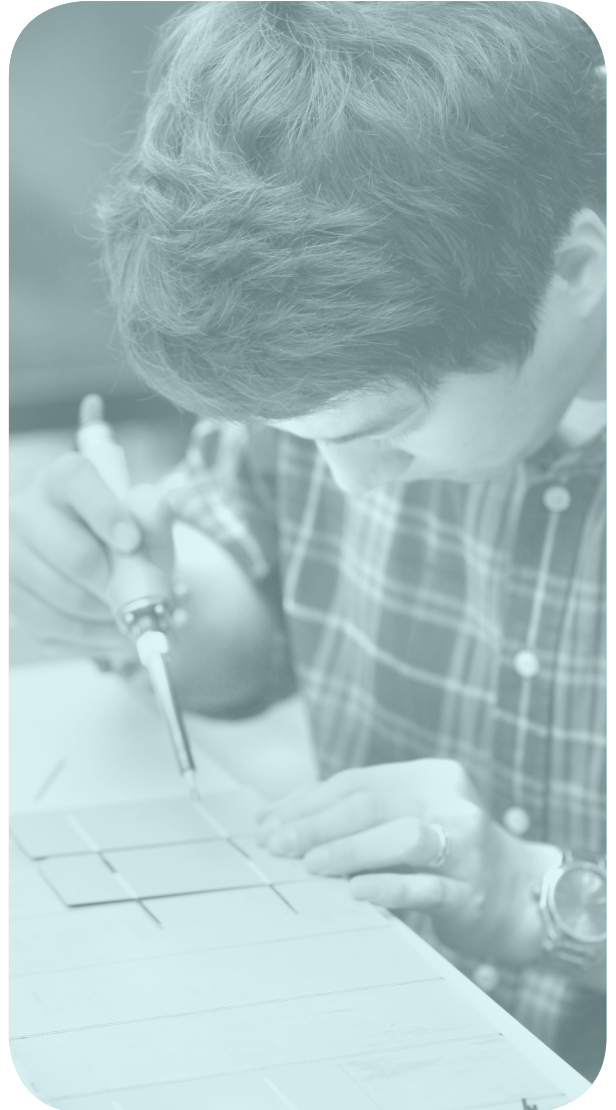
비록 끝까지 완결해내지는 못했으나 전체 분위기는 활기찼다. 참가자 대부분이 태양광 패널 제작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중하며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두 납땀은 평소에 거의 해보지 못한 생소한 작업일 텐데 참가자들은 주의 깊게 배우면서 재미있어했다.

가능한 모든 과정에서 재료를 만지고, 다루게끔 했는데 특히 태양광 셀은 불과 0.3mm 두께로 얇고 민감하다. 이 셀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고, 어느 부분은 잡지 않아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견본품을 직접 깨보면서 그 감을 익혀 보기도 했다.



참가자들과 진행자들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즉흥적으로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주로 작업 관련해 납땀이나 인두 잡는 법 등의 질문이 많았으나 태양광 패널의 실제 적용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실제 발전되는 순간 전력과 시간당 발생전력에 대해 묻는 참가자도 있었고 라미네이터를 시중에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주문 제작은 가능할지 궁금해 하는 이도 있었다. 진행자들은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했으나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 역시 이 분야의 기술자나 전문가라기 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실험하고 공유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대중과의 공유에 있어 필요한 만큼은 전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스스로 전력을 자가생산한다고 했을 때, 생산량과 효율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후에도 여타 워크숍에서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특히 태양광 패널 자가제작의 한계에 대한 질문은 흥미로웠다. 한 참가자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데, 직접 만드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량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게 더 낫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존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스스로 또는 공동체 단위에서 자립의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취지 아래 자가제작이 의미를 지닌다는 말도 덧붙였으나 참가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 배움 |

태양광 패널 워크숍을 지루하게 느낄까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참가자들은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작업에 임해주었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피해 전환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자칫 피곤하고 막막하게 다가올 수 있으나 그 전환의 계기를 손을 통한 작업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왜 우리가 직접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하는가?”였다. 해마다 전국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에너지 수급계획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마치 에너지 생산이 무제한인 것처럼, 공급되는 만큼 쓰고 값싼 전기요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하니 대중은 에너지에 대한 감각을 갖기가 어렵다. 후쿠시마 이후 전환의 삶을 생각하면서 에너지에 있어서만큼은 발전소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로부터 에너지의 양을 생각하고,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 ‘말’만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는 경험을 하며 참가자들이 자기 삶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담았다.

기획과 준비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으로 오는가 생각해 보는 계기를 기대했기에 실제 진행 과정에서 작업이 너무 늦어진 탓에 그들의 리뷰나 피드백을 못 들어보고 워크숍을 마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진행자들끼리 워크숍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참가자들에게 의견과 소감을 묻고 또 진행자들이 의도했던 바, 적정기술과 태양광패널 제작을 시작하게 된 취지와 전하고 싶었던 의미 등 못 다한 말을 담아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태양광 패널 제작 워크숍에서는 다 만들고 난 후, 전선을 연결해 태양에 쬐어보고 전력 계측을 해보는 식이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이 기술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의미라면 이제 실생활에 쓸모 있는 더욱 구체적인 예시로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춰 놓고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던가 축전 가능 여부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희망 |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가정 내 전력사용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력 자립을 위한 작은 시도라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주 많은 양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일정 사용량을 꾸준히 줄일 수 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에서의 전력사용을 일상에서 의식한다는 일종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히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의 장기 프로젝트인 ‘살림집’ 프로젝트의 에너지 자립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자센터 본관 앞에 위치한 ‘집’이라는 구체적인 살림의 장소에서 태양광 패널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라 살림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자센터의 살림집은 청년작업장을 통해 상시적인 적정기술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앞으로 청소년, 청년, 시민들과의 워크숍, 체험 등을 통한 공유와 연결을 지속할 수 있다면 이번 워크숍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적정기술, 나아가 삶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꾸준한 참여자들과 지지자들을 엮어낸 계기 중 하나였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창의적 의사소통을 위한 세 시간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0:00 ~ 13:00
- 장소 | 신관 303호
- 참여인원 | 10명
- 강사 | 이진아(떠비, 하자작업장학교), 다니엘 컵스(하자작업장학교 글로비시 강사)

■ 기획 |

본토영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린 교사들을 위한 글로비시 기반의 창의적 의사소통 워크숍. 글로벌과 잉글리시 두 단어의 합성어인 글로비시는 1천 5백 개의 기본 단어, 24개의 간단한 문장구조와 기본적인 발음구조만 익히면 되는 쉬운 영어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기존 영어를 간소화한 버전이다. 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원작자 장 폴 네리에르의 지원 아래 글로비시의 청소년 교육 버전을 만들기도 했다. 본 워크숍은 하자 작업장학교가 2008년부터 7년여 간 글로비시 교육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 진행 |

워크숍 참여자는 대안학교 및 일반학교 교사들이었으며 각기 가르치고 있는 대상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양했다. 참여한 이유 또한 다양했는데, 영어를 싫어하거나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한 해외에서 영어를 공부한 학생과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절반 정도의 참여자들은 개인적 호기심이나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로 이 워크숍을 선택했다.

워크숍의 앞부분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영어로만 워크숍이 진행된다는 것에 놀랐지만, 글로비시가 간단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대부분을 이해했다. 글로비시가 만들어진 배경 설명과 함께 그 목표가 속어, 속담 및 관용구를 배제한 쉬운 단어와 단순한 문법 구조를 사용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임을 전달했다.

프레젠테이션 이후 시범수업이 이어졌다. 글로비시 첫 수업에 수업 참가자들과 함께 정하는 약속과 한 학기 동안 꼭 외웠으면 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액티비티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두 번째 시범 수업은 뉴스 기사를 글로비시로 다시 쓰기/다시 표현하기를 실습하는 것이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참가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지막 Q&A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기를, 혹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에 대해 토론하길 기대했으나 교수법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로 끝이 났다. 그러한 피드백만으로 하자에서 '왜' '어떻게' 글로비시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글로비시 하자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았을 수는 있으나 참가자들이 자신의 '입맛'을 재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나아가 전망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글 | 이진아(띠비, 하자작업장학교)



모두의 손과 몸, 가슴이 움직인 시간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5:30 ~ 17:00
- 장소 | 신관 4층 허브 정원
- 참여인원 | 150명
- 진행 | 조유나 (가비, 공방팀)
- 스태프 | 플랜비(Plan-B) 참가 청소년

■ 기획 |

우리는 언젠가부터 타인과의 만남보다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접속하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머리만 사용한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성취감과 쓸모를 만들어내야 할 양 손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데만 사용된다. 이미 자연스러워진 이 모습들 속에서 개인의 고립이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들에게 함께 산다는 것 혹은 공공을 위하는 것이란 무의미할 뿐이다. 나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우리라는 관계를 만들고, 그리하여 공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몸소 경험하는 활동들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습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에 ‘몸으로 익힌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잊혀진 진리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손과 몸을 통한 창조의 기쁨을 느끼고, 스스로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본연의 힘을 되찾고, 타인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전 과정을 통해 ‘조금씩 천천히 함께 회복하기’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경험하고자 한 것이 이 워크숍의 기획 의도이다.

타일 벽화 워크숍은 버려진 타일을 물로 씻기, 천으로 윤내기, 망치로 두드려 조각내기, 밑그림을 따라 한 조각 한 조각 붙이기, 조각과 조각 사이를 메우기라는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각 단계는 단순하고 특이할 만한 기술도 필요 없다. 하지만 사물을 ‘씻기’ ‘윤내기’ ‘깨기’ ‘붙이기’ ‘메우기’란 요즘 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손기술이기에 이 작은 움직임들을 깨울 필요가 있었다. 작은 타일 조각을 커다란 벽면에 붙여 하나의 벽화를 만드는 본 워크숍은 서로의 힘과 노력, 정성을 모아 공공의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이 워크숍에는 2014년 상반기부터 일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교육 프로젝트 ‘플랜비(Plan-B)’ 청소년 15여명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들은 흙공방 워크숍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신관 4층 야외공간에 만들어진 허브정원 타일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왔다. 벽면의 20%를 완성

한 이들이 서밋 기간 이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에게 작업을 안내하고 함께 커다란 벽면을 채워 완성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 과정은 플랜비 청소년들의 배움을 타인에게 전달한다는 나눔의 의미, 그리고 힘을 모아 모두의 공간을 살린다는 공공의 의미도 담고 있다.

■ 진행 |

워크숍은 9월 26일 서밋 개막식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하하허허홀 앞에서 개막식 입장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바람을 쐬려 현장인 야외공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개막식 이전에는 해외 게스트인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 켄다 유지 교수를 비롯하여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손님들이 청소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작업에 집중했다. 개막식 이후 본 워크숍에는 하자작업장학교 중등 및 고등과정, 성미산 학교, 홍콩창의력학교(HKSC), 라이프디자인캠프 등 다양한 소속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하자마을 주민 및 어린이들도 함께 타일 벽화 작업을 즐겼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서로 묻고 알려주며, 간단하지만 색다른 손작업에 몰두했던 타일 벽화 워크숍은 기대 이상의 화기애애함과 활기, 생명력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홍공방에서 약 5개월간 휴작업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배움을 나누는 것, 또 사람들의 소망이 단어가 되어 타일 조각에 쓰여지고, 이 모든 타일들이 어울려 하나의 벽면을 채웠다. 그로 인해 허브정원에는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모인 아름다운 벽면이 창조되었다. 워크숍 역시 희망의 메시지를 적는 테이블과 밑그림이 그려진 벽면, 이 두 가지로 단출하게 세팅되었다. 실내에서 통유리를 통해 내다보이는 야외 허브정원은 허브 주민들이 애정으로 가꾼 나선정원, 하자 앞치마를 두른 청소년들로 메워지며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충분할 만큼 매력적인 분위기를 발산했다.



■ 배움 |

본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는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며 주인이 되어보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특히 공방 워크숍을 통해 생활기술을 습득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배움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타인과 나누는 기회가 필요하다 여겨졌다. 이 과정에서의 배움이란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고민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윗세대로부터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나눌 줄 아는 것, 그 모든 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경험하며 체화하는 것이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워크숍에서 스태프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기대하면서 또 긴장도 하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가르쳐 준다구요?”

“이것 봐! 자료집 타일 벽화 워크숍 소개 사진에 다봉이가 나왔어!”

“저희가 스태프라니까 너무 긴장돼요.”

이들의 긴장과 설렘은 워크숍이 시작되는 순간 흥분과 활기로 전환되었고, 어느 순간 다세대/다국적이 어울리는 축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손과 몸을 쓰며 자신감을 키운 청소년들은 응원과 격려, 도움을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기 보다는 자신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순한 기술을 통해 타인에게 나누어지며, 살아가는 힘을 만들 수 있었다.

■ 희망 |

짧은 시간의 워크숍이었으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모두가 경계없이 어울리며 행복해했던 순간이 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배움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시간을 억지스럽게 만들기 보다는 그곳을 채우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연결하고 그들이 다른 세대와 만날 수 있도록 판을 벌이는 것, 그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 삶의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말을 걸고,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고, 혼자 해결하지 못하면 친구의 도움을 받고, 땀 흘려 무언가를 함께 만들며 자신을 회복해 가는 모습들. 이 모든 움직임들이 심지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활동들이 시시때때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손과 몸, 가슴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글 | 조유나(가비, 공방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손 써본' 일요일 오후



-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14:00~17:00
- 장소 | 신관 중정
- 참여인원 | 70명
- 진행강사 | 김서녕, 땡땡이 공작, 마을기술센터 핸즈, 멧글고, 목화송이, 코 께는 사람들

■ 기획 |

세월호 사건으로 대변되듯 재난사회, 위험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두, 함께', '스스로, 손으로'에서 찾아보는 장의의 장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막식인 9월 26일 정기 달시장을 함께 한 것에 이어 다음 날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손작업 워크숍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서밋 달마당'을 열어 달시장 및 서밋의 취지를 더 알려보고자 했다. 2014년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마을살이를 구현하고 있는 달시장과 마을 속 배움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연결하는 오뎀한 마을축제의 장으로 만들자 했다. 또한 하자허브 멤버십 및 달시장 등을 통해 연계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 기반 그룹들을 초대해 사람들을 맞음으로써 일상에서의 소소한 시도로도 삶을 위한 전환을 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 진행 |

전 날 저녁 늦게까지 달시장 덕분에 바빴지만 서밋 달마당을 위해 총 6개 팀들이 기꺼이 연이어 참여해 주었다. 수천여 명이 밀집하는 달시장과는 달리 주말 오후에 신관 중정에서만 열리는 터라 참여자가 적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오가는 지역 주민들과 서밋의 다른 강연 및 포럼에 참여한 이들의 관심을 끌며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다세대가 함께 한 '손뜨개 워크숍'과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생필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작업을 통해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첫 걸음을 떼게 했다. '면 생리대 만들기'의 경우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통한 환경 문제를 자각하면서 아빠가 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만들어 선물하는 등 정감어린 마을살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을기술센터 핸즈는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낯선 적정기술을 소개하면서 태양광 패널 만들기를 선보였고 멧글고는 메이커 운동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 '사례 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이', 새로운 상상과 확장'과 연계해 땡땡이 공작이 진행한 '땡땡이 등지 공작'과 '라인 트레이서 체험 워크숍'에서는 어린이들이 뛰노는 등 시종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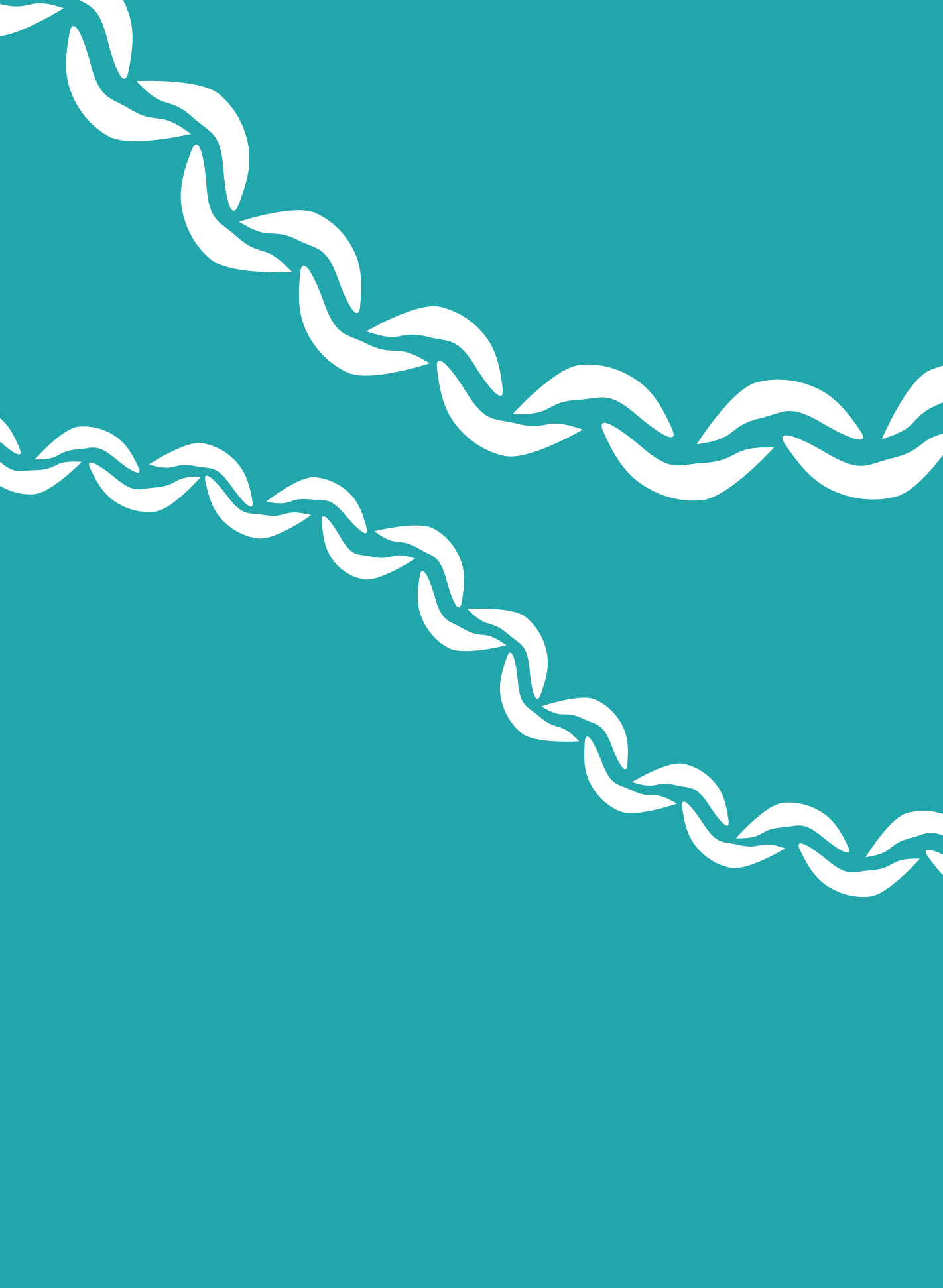
■ 배움 |

휴대폰과 전자매체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손작업이 주는 즐거움과 그 의미에 대해 전달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땡땡이 등지 공작'에서 매일 가지고 놀 장난감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들어보았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코바늘로 수세미를 뜨며 처음 보는 이들과 수다를 나누었다. 토요일 오후의 세 시간,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조금은 불편해도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참여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베품시장, 물물교환 등 마을살이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손작업 워크숍 위주의 구성이 되어버린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같은 맥락에서 창의서밋 참여자들은 서밋 달마당의 활동을 서밋 전체 주제 및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었으나 오고 가다 참여한 이들의 경우 단순한 활동 이상이 되긴 어려웠다. 서밋 달마당은 포럼, 강연, 세미나 등 조금 무거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서밋에서 일반 대중과 맞닿아 있는 통로 역할을 해내야 한다. 가볍게 시작하지만 깊이 있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희망 |

달마당은 서밋 개막과 함께하는 정기 달시장의 넘치는 에너지와 흥을 다른 날에도 연장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진행되었다. 특히 서밋의 취지에 공감하는 하자허브 멤버십 및 외부 그룹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팀들의 면면도 놀이 활동을 하는 청년 작업자 그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머니 커뮤니티, 적정기술 센터, 협동조합 등 다양하다. 일회성, 큰 규모로 진행되는 달시장의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달마당은 향후 달시장의 일상 기반 버전인 작은 달시장에도 큰 참조가 될 것이다.

글 | 전해령(루나, 협력기획팀)



PART 2 재난사회의 교육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이 시대 교육포럼 2 포스트후쿠시마시대의 학습과 성장

이 시대 교육포럼 3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서밋강연 - 공동체 다시 만들기:

‘새로운 마을’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 테사 모리스-스즈키

서밋강연 - 격차사회에 놀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 겐다 유지

‘생존의 시대’를 위한 시공간 만들기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6:00 ~ 18: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참여인원 | 49명
- 사회 | 김찬호 하자센터 부센터장, 성공회대 초빙교수
- 대담 | 겐다 유지(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
정병호(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한혜정(하자센터장, 연세대 명예교수),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국립대 태평양아시아학부 교수)

■ 기획 & 진행 |

2014년 4월 19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고민을 안겨 주었다. 사고를 당한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학생들이었다는 점과 우리가 처한 ‘재난 자본주의’가 세월호에 탔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청소년, 나아가 지구상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통찰을 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울리히 벡이 말하는 ‘위험 사회 risk society’에서 무엇을 배워나가야 할 것인가? 몇 십년간 같은 원리로 반복되고 있는 ‘프랙탈적’ 재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방적 파국’으로 전환시켜가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창의적 질문과 배움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현재 삶을 조명하고 미래로 나아갈 지혜와 용기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원탁대담은 하자센터 부센터장이자 교육센터 마음의 씨앗 부센터장인 김찬호 박사의 사회로 창의서밋 개막 강연자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 교수와 겐다 유지(Yuji Genda) 교수, 그리고 제도교육 안팎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고민해 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이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병호 교수와 하자센터 설립자이며 연세대 명예교수인 조한혜정 교수 이렇게 네 명의 지성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 진행 |

원탁대담은 사회자인 김찬호 하자센터 부센터장의 대담자 소개로 그 시작을 열었다. 첫 대담자인 조한혜정 하자센터 센터장은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신자유주의적인 생명정치 bio-politic 즉 자기관리를 통해 신체를 길들이는 고도의 통치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금의 재난상황을 풀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난사회와 함께 생명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대담자인 정병호 교수는 21세기는 희망으로 시작했으며 모더니티의 이상이었던 합리적인 세계를 지구상에서 폭넓게 실현시킨 시대임을 조명하였다. 이어 이른바 현대성이라 부르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단단해진 구조로부터 속박을 받게 된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지적한다. 지금의 재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되었으며 실제로 재난이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재난상황은 비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 그 자체가 우리를 일상적으로 억압해나가고, 점점 속박하여 움푹달짝 못하게 만들고, 구조에 압도당하여 살아있는 생명들이 질식당해버리는 구조적 속박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는 이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으로는 순환되는 인간사회의 사회적 딜레마, 문화의 딜레마라고 보았다. 인류가 어떤 합리적인 체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서열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구조 안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효율성 때문에 질식당하는, 그로 인해 그것을 돌파해 내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구조를 꿈꾸게 되고, 그 구조 자체에 대한 저항의 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이 바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생존의 정치 Survival Politics는 역시 이 시대에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원래 생존, 생명의 울림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나 구조라는 것이 사회적 속박 혹은 제도적인 질서를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한 생명의 울림과 살아있음에 대한 증언이 바로 생존의 정치이고 그것은 정형적인 논의에서는 구조에 대한 반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구조에 대한 반구조,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혁명이나 가두시위의 모양을 하기 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젠다 유지 교수가 말한 불안의 정체인 격차사회, 이런 위계적인 구조에 대한 문화적인 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못 견디는 것, 그리고 속박을 벗기 위한 생존의 정치는 일상 속에 있는 것이고 거대한 사건으로 온다기보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정병호 교수는 불안과 같은 내면적 붕괴,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격차사회에서의 전망 상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없도록 몸 속까지 관철된 박제화된 삶을 생명정치가 어떻게 재할할 것인가를 자문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대에 생명의 소리, 본성을 일깨우는 재할의 시대를 꿈꾸어 보기를 제안하였다. 겐다 유지 교수는 재할의 시대를 꿈꾸기 위해서 지금 같은 재난사회이어야 말로 몸을 잘 쉴 수 있는, 어떻게야 잘 쉴 수 있는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질의 응답 시간에 한 대안학교 교사는 “어른이나 아이나 지금 현재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지 난감하고,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병호 교수가 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전통의 힘’에서 강렬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겐다 유지 교수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어쩌다 만나는 정도로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인 ‘느슨한 유대’를 설명하며, 자신과 다른 정보를 가진 사람과 무리없이 교류하고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느슨한 유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시대에는 강한 연대와 느슨한 유대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말한다. 조한혜정 센터장 역시 “대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모여서 난감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정말 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나오는 힘, 내가 가진 결핍을 인식할 수 있으면 약한 유대(weak tie)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부족하니 서로 신세를 지고,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로 가는 것. 그리고 ‘community work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 다른 질문자인 한 교사는 이런 코멘트를 남겼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는 교사가 가야 할 길을 많이 모색하지만, 실제로 학교의 상황을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방어성이 더 짙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이전까지는 동아리도 많고 자율적으로 허용을 했다면, 지금 와서는 ‘자유’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사가 동반하지 않는 모든 행사는 다 보류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교외활동도 취소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선택은 그냥 공부만 하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세월호 이전보다 더 답답하죠. 사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지만, 실제로 공교육의 현실은 오히려 ‘공부만 하자. 안전하게 학교에 있자’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반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에 조한혜정 센터장은 학교 현장에서 막막한 상황에 빠져있는 교사에게 “세 명이 모여서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이야기하고, 교사로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망갈 아이들 도망시켜도 되고, 질문하는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고, 다 책임지려고 들지 말라. 일본의 어떤 작가는 ‘이 치열한 무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만 하라고 하더라. 모리스-스즈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자신 속에 ‘free world’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교사 자신부터라도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조언하였다.

■ 배움 |

한국, 호주, 일본 석학이 만난 원탁대담은 모리스-스즈키 교수가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춰 한-일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다. 대담자들의 긴 이야기를 일-한, 한-일로 통역하는 과정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세월호 이후 각자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과 새로운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재난 자본주의'가 격차 사회에서 '생존'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환경파괴나 핵발전소와 같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지속가능한 전환과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글 | 최은주(거품, 학교운영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탈핵 청소년 연대로



-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15:00 ~ 18:0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하하홀
- 참여인원 | 100명
- 영상 | 송전탑이 들어선 세계, 밀양토박이 준호의 이야기
- 퍼포먼스 | 로자와 함께 추는 훌라춤 ‘폭포는 멈추지 않는다’
- 발표 | Aoki Yutaro(후쿠시마 블라스트 비트) ‘후쿠시마의 현재와 미래’
Stephanie Sue Spaeth(홍콩창의력학교) ‘Experience in HKSC’
김경미(인헌고) ‘탈핵, 에너지수호활동’
강유진, 오선재(성미산학교) ‘버뮤다 삼각텃밭’
이사명, 이지윤, 조채윤(하자작업장학교) ‘잡고 싶은 손’
김성빈(청년초록네트워크) ‘너와 나의 연결고리’
- 토론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기획 & 진행 |

‘이 시대 교육포럼 2-포스트후쿠시마 시대의 학습과 성장’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다. 첫 해에는 대안학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사고가 드러낸 시대의 위기를 감지하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너지 위기를 넘어 문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에는 태양의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도 발표자로 자리했고, 일본의 청년, 한국의 청년, 밀양 어린이의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어떤 과정으로 학습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다른 곳에 있으나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올해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는 ‘이 시대 교육포럼 2-포스트후쿠시마 시대의 학습과 성장’을 ‘재난사회의 교육’ 섹션에서 진행했다. 발표의 시작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온 청년 활동가, 하자작업장학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홍콩창의력학교가 열어주었다. 후쿠시마의 청년 활동가 Aoki Yutaro는 사고 이후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공연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하자작업장학교와 자매학교라고 할 수 있는 홍콩창의력학교

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학습을 하며 문화예술교육을 병행한다. 2011년부터 탈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자작업장학교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민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그러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홍콩창의력학교에서도 생태적 학습, 탈핵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핵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탈핵을 위해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은 세계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십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생각하면 탈핵은 청소년 당사자 운동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포럼은 청소년, 청년들이 만드는 동북아시아 대책회의의 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 기대감은 발표자들이 모두 나와 한 마디씩 나누었던 마무리 인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김성빈(청년초록네트워크) | 청년초록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소개를 하면 시원찮은 반응을 얻을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초록네트워크에서 하는 공동행동도 내년부터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Stephanie Sue Spaeth(홍콩창의력학교) |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힘이 되었어요. 한국과 후쿠시마에서 큰 변화를 꿈꾸면서 우선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부나 국가를 밀어내기 보다 자신이 품담고 있는 공동체에 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Aoki Yutaro(후쿠시마 블라스트 비트) |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만날 것이기 때문에 궁금했던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움 |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이 포럼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학습과 활동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이다. 올해에도 학교별로 다양한 경험이 공유되었다. 태양의 학교 인현고는 탈핵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행사에 참여해왔고, 성미산학교는 도심 유희지를 찾아 밭을 갈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하자작업장학교는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과 함께 하기 위한 마음과 자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각각의 경험들 속에서 공통으로 가지게 되는 고민이 무엇인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지,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현실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하고, 공통의 고민을 가지고 주제가 있는 토론을 할 필요도 있다.

■ 희망 |

올해에는 중등, 고등,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그룹이 섞여 포럼을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비슷한 또래 그룹끼리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하자작업장학교 중등 과정이 협력학교로 연계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곳 있다. 무지개학교, 산어린이학교,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연당중학교 등이다. 내년에는 창의서밋 이전에 사전모임을 기획하여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고, 각자 활동들을 미리 공유하여 포럼에서 나눌 대화에 대해 계획을 잡아보려 한다. 중등과정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대화를 한다면, 고등과정과 청년은 아시아지역까지 확장해 탈핵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가는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연대에 대한 서로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탈핵을 위한 동북아 공동회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글 | 김유리(유리, 하자작업장학교)





‘생존과 존엄의 삶’을 위한 연대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일요일 10:00-13:0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하하홀
- 참여인원 | 40명
- 사회 | 하자작업장학교 김희옥
- 발제 | 고바야시 나오키(Kobayashi Naoki, 빈즈 후쿠시마 활동가),
조앤 윙(Joanne, Ting Chi Wong, 홍콩창의력학교 교사),
조영현(성미산학교 교사), 김은형(인헌고/태양의 학교 교사),
송순옥(맑은샘학교/대안교육연대), 이은혜(금산간디학교 교사)

■ 기획 & 진행 |

이 포럼의 기획 의도는 참여자들에게 보낸 초대어의 글로 대신할 수 있겠다.

〈초대의 글〉

지난해까지 격월로 진행하던 ‘이 시대 교육포럼’을 오랜만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육포럼’에서 꾸준히 고민을 나눴던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교육’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문제적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그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배웠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혹은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해 보려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토건국가와 금융자본주의와 핵 산업계와 같은, 50년도 안된 우리 문명의 그늘 안에 가려져 있어, 그 그늘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과 우주를 만나는 일은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대안교육현장들과 함께 ‘밀양’에서 벌어진 송전탑 싸움을 통해 후쿠시마가 우리들의 방안, 우리들의 교실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세월호 사건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학생들의 생존을 돕는’ 교사의 역할까지를 생각해 내며, 무겁고도 아픈 마음을 가누지 못한 시간도 겪었습니다. 교실은 재난과 위험사회 안에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며 생명과 존엄의 삶을 구해낼 방주가 될 수 있을까요? 방주처럼, 혹은 구명선 Life-Boat처럼, 우리는 한 배에 타고 대홍수를 헤쳐 나갈 동료들로서, 교사와 학생(그리고 학부모) 관계를 재구성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재난과 위험 속에서 학생들이 감지하고 겪어내는 시간을 교사와 학부모들이 얼마나 눈치채고, 공감하고, 나아가 더불어 겪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주면서 지내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배웠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될까요? 지난 3년하고도 반년의 시간, 그래도 ‘교실’이란 배움과 성장의 장소에서 한 발짝이라도 먼저 내딛으며 책임감과 소명을 고민했던 교사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밀양 송전탑 싸움,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 시대 교육의 내용적 전환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고민하며 구체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였다. 대안교육과 공교육 현장의 교사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홍콩과 후쿠시마의 교사/활동가들이 모였다.

■ 배움 & 희망 |

‘재난사회의 교육-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이라는 주제 아래 모인 이야기는 다양했다. 홍콩과 후쿠시마에서 온 발표자들은 ‘재난’과 ‘위기’에 대한 문제 설정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홍콩창의력학교는 현재 홍콩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지역의 위기로 보고, 이에 맞서 민주적 의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창의적 학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빈즈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역 커뮤니티 붕괴로 청소년들이 학습의 장소뿐만 아니라 의욕마저 빼앗긴 상황을 설명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빈즈 후쿠시마는 1999년 후쿠시마현에서 문을 연 프리스쿨이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핵발전소 사고 한 달 후인 2011년 4월부터 학교가 재개되었는데, “아이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한편에 남은 청소년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 학교에 남는 것을 선택한 교사들이 있었다고 한다. 사고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감은 지역의 어른들에게서 청소년들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등교 거부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 현 내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높은 상태이다.

빈즈 후쿠시마의 활동가 고바야시 나오키는 19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후쿠시마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보다는 핵발전소 유치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선택했고, 누출사고 이후에는 핵발전소가 아닌 배상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존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피난 생활의 고통을 국가와 도쿄전력의 배상금으로 대체하거나,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나는 정도의 주체성만을 발휘하게 되었다.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핵발전소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진 경제적 이익에 의존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당사자이기도 한 시민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가르치고 지원할 수 있을까? 이는 재난사회의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홍콩과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재난 이후의 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졌다면, 국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는 재난사회의 대안으로서 ‘생태적 전환’을 제시하며 교실 안에서 실천해왔던 구체적인 실험에 대한 이야기였다. 교사들마다 현장과 환경이 다른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성미산학교 중등과정은 3년 전부터 텃밭농사, 적정기술 프로젝트, 마을 절전소 만들기 등을 통해 ‘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과거에 단발성으로 진행된 생태 프로젝트들이 가졌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마을 환경 안에서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를 꾸려가고자 한 것이다. 이제 막 중등과정에 들어선 7학년 학생들은 1년간 평창에서 농사를 중심으로 사립생활을 경험하는 ‘농장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농사를 중심으로 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서울 본교로 돌아온 뒤에는 마포 지역의 버려진 나대지를 공동체 텃밭으로 만드는 ‘버뮤다 삼각텃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퍼머컬처에 대해 공부하면서, 밭 디자인도 고민하고, 생태화장실과 퇴비간, 빗물저금통을 만들어 흙과 물이 순환될 수 있게 했다. 그 옆에선 지역 청년 사회적기업이 양봉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닭을 길렀다. 또 쉽터와 생태 화장실은 생태예술가 그룹과 어울려 만드는 등 텃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며 공동체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다. 텃밭 음식의 조리를 위해 화덕을 만들기로 하면서 비전력 조리용 화덕을 만들기 위한 적정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 짓게 될 학교 별관 건물을 통해 도시에서 실현가능한 형태의 적정기술을 실험해보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다.

성미산학교의 조영현 교사는 스위치를 켜고 끄거나,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는 것 외에 실재하는 감각적 경험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손과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복원한다는 데 전환마을 프로젝트의 교육적 의의를 두었다. 생태적 학습의 내용과 결과가 박제된 ‘체험학습’이라는 틀을 넘어서, 생태를 우리 삶으로 호출하고, 일상을 변화시켜나가는 힘과 그 과정을 함께 하는 친구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오일피크, 기후변화, 핵에너지와 같은 생태적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이후에도 공동체를 만들고, 회복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갖춰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천 맑은샘학교의 고민도 성미산학교와 맥락을 같이 했다. 맑은샘학교의 송순옥 교사는 이웃나라의 원전사고와 세월호 사건을 겪은 후에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가며 가동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려면 생태적 실천과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일상에 자리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교실에서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핵발전소와 밀양에 대해 공부하지만, 눈만 돌리면 사회 곳곳에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가 가득한 상황이니, 수고를 들여 쓸모 있는 것을 만들고, 예전보다 덜 쓰는 일들을 일상에서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수용자로 호명 받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감수성을 기르고, 학습과 일상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한 과정으로 농사와 손작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인헌고등학교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 탈핵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태양의 학교’ 일원으로서 포럼에 참여했다. ‘태양의 학교’ 구성원들은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는 삶의 철학과 태도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내 환경동아리를 만들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이 잡은 초점은 무엇보다 ‘핵은 고마운 에너지’라는 대중의 기존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핵 발전의 위험성을 또래 친구들과 대중에게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방사능 급식의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작지만 주변의 시선과 생각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앞선 두 학교가 청소년들 스스로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속한 환경 안에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면, ‘태양의 학교’는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한편 금산간디학교의 이은혜 교사는 ‘생태적 전환’을 향한 이상과 교실 안 현실의 간극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짚은 글로 발표했다. 청소년과 부모들이 ‘교육 소비자’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함께’ 하는 전환이 되기 위해 어떤 교육적 방식과 내용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러한 고민은 교사들이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연대할 수 있는 교사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었다. 교실이 생존으로부터 생명과 존엄의 삶을 구해낼 방주가 될 수 있으려면, 한 배에 타고 대홍수를 헤쳐 나갈 동료들로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관계를 재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삶의 정치학 속 마을의 ‘부활’



-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10:00 ~ 12:00
- 장소 | 신관 203호
- 참여인원 | 50명
- 발제자 |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국립대 태평양아시아학부 교수)

■ 기획 |

자신과 이웃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국가가 이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 역할을 뛰어넘는 사회적 행동과 발언을 통해 조용히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삶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을 제시한다. 세월호 사건부터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까지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총체적 위기를 직면하는 요즘, 우리 스스로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본 강연이 기획되었다. 모치즈키, 후쿠시마 등 일본의 여러 지역 사례를 살펴봄에 주민들 스스로 전문지식을 익혀 자치와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배움과 교육에 대해 통찰해온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를 초대하여 현 사회에서 권력과 체제,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으로 삶의 생명력을 회복해나가려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고 그 필요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스스로 삶의 필요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삶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을 바탕으로 상호 연대와 협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진행 |

일본의 자작나무 운동 사례 발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자작나무 운동의 주요 인물인 사회 개혁가 무사노코지 사네야채와 운동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그 정신을 잇고 있는 일본의 모치즈키 마을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중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인 후쿠시마 토와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자 전체 분위기가 집중되었다. 현재 우리에게 탈핵이라는 주제가 가깝게 있고 실제로 강연장에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계시기도 하여 후쿠시마 토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내외부의 생각을 모으는 방식,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피해와 복구에 대한 사례 발표가 청중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 토와에 닥친 재앙을 삶의 정치학을 바탕으로 회복해가는 최근까지의 모습을 발표하던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후쿠시마 어디를 가든 ‘복

구'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데, 토와 사람들은 이 대신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복구'가 재난으로부터의 불편한 진실을 덮는 용도로 쓰이는 감이 있다는 판단에서란다. 더불어 토와의 프로젝트가 모색하는 '부활'은 그들의 삶과 환경에서 방사능의 존재를 매일 마주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직면한 도전은 지역적인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만든 방사능이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어디에나 존재하게 됨에 따라서 더 넓은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이것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며 이 두 가지 케이스 외에도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해보고 싶다는 메시지로 강연을 마쳤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의 김영자 총무의 질문들은 청중을 놀라게도, 고민하게도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청중들의 질문이 계속되었다. 아래는 본 강연의 질의응답 중 일부이다.

질문 | 저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밀양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정부가 돈으로 회유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정부, 경찰이나 회사 등에서 돈으로 회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모리스-스즈키 | 일본에는 현재 원전 50여개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없지만 50개 전부가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현재 원전 재가동은 일본 내 이슈인데, 아마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재가동에 협조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서밋강연(테사 모리스-스즈키)

공동체 다시 만들기
'새로운마을' 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일시 : 9월 27일(토) 10:00-12:00
장소 : 하자센터 신관 2층 203호



질문 | 새로운 마을운동을 하는 곳들을 보면 주민들이 꼭 지키고 싶은 땅이 있거나 땅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어서 그것이 세대로 이어져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마음들 때문인 것 같다. 저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보지만 도시에서도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한다. 교수님이 오늘 소개하신 것에는 도시의 사례는 없는데 혹시 도시마을운동과 지역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모리스-스즈키 |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에서의 도시마을 만들기와 비슷한 종류의 운동은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다. 도시마을보다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운동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일본의 자살문제와 관련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들 중에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회 활동도 하고 취미 같은 것도 공유하게 해서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마을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이 운동은 다른 운동들과도 연계를 하고 있는데 농촌과 도시를 연계해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유기농업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을 한다.

질문 | 공동체 마을 다시 만들기 운동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유입하는데 주력했는지가 궁금하고,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분명 달라졌을 텐데 어떤 것이 가장 달라졌는지가 궁금하다.

모리스-스즈키 | 토와 지역의 주민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지역 학교에서는 연극이나 음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관련된 메시지를 담아내는 활동 등을 하고 있고, 이 외에 토와현 외의 다른 지역 대학생들을 모치즈키로 불러들여서 직접 농사에 참여해 보게 하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질문 | 서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장 먼 곳에 원전을 지어 송전을 하고 있다. 원전이 한전 직원들이 하는 말처럼 인체에 아무 해가 없고 좋다면 똑똑한 서울 사람들이 그 멀리에 지을 일이 없지 않은가. 일본에서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송전탑을 짓는지 궁금하다.

모리스-스즈키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상황도 매우 비슷하다.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과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짓는다. 후쿠시마현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도쿄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어촌이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석탄광산이 있어 여기서 나는 석탄이 도쿄로 갔고, 이후 석탄이 떨어져 에너지원이 없어지자 후쿠시마에 원전을 지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들어올거라면서 원전을 짓게 된 것이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전력은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100% 도쿄로 간다고 한다.

■ 배움 & 희망 |

본 강연은 '삶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이 무엇인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민들 스스로 방사능 측정소를 세우고 대학 연구자들과 함께 방사능 지표를 만들었으며 농부들은 방사능 물질의 흡수를 막는 성질이 강화된 비료를 생산한다는 토와의 사례는 핵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보려는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모든 움직임의 기반은 바로 공동체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이 모여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느슨한 연대, 희망의 기술



-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16:00 ~ 18:00
- 장소 | 신관 203호
- 참여인원 | 30명
- 발제자 | 겐다 유지(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

■ 기획 & 진행 |

현재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이자 희망학 프로젝트 리더인 겐다 유지 교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in Employment or in Training) 연구자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2년에는 <고립무업>이라는 책을 통해 직업이나 일도 없이 혼자, 혹은 가족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맺지 않는 20~59세 사이의 미혼 인구를 일컫는 고립무업(孤立無業, Solitary Non-Employed Person: SNEP)이란 개념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읽고 있다.

불안과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청년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벽은 간단히 넘어설 수 없을 만큼 거대할 지도 모른다. 본 강연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희망과 사회 전체의 희망을 발견하리라 말하는 겐다 유지 교수와의 깊이있는 만남을 통해 후기 청소년/청년의 고립무원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의 느슨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계(weak tie)를 만들어 삶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자극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기술을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했다.

겐다 유지 교수는 강연이 끝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연 중에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을 보태주었다. 아래 내용은 그 일부이다.

질문 |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곤란한 상황에 빠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일본의 어느 산골짜기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도 없어서 혼자 힘으로는 마을로 가서 식료품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도시에서 희망을 잃고 시골로 돌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루 종일 창문에 커튼을 치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 히키코모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곤란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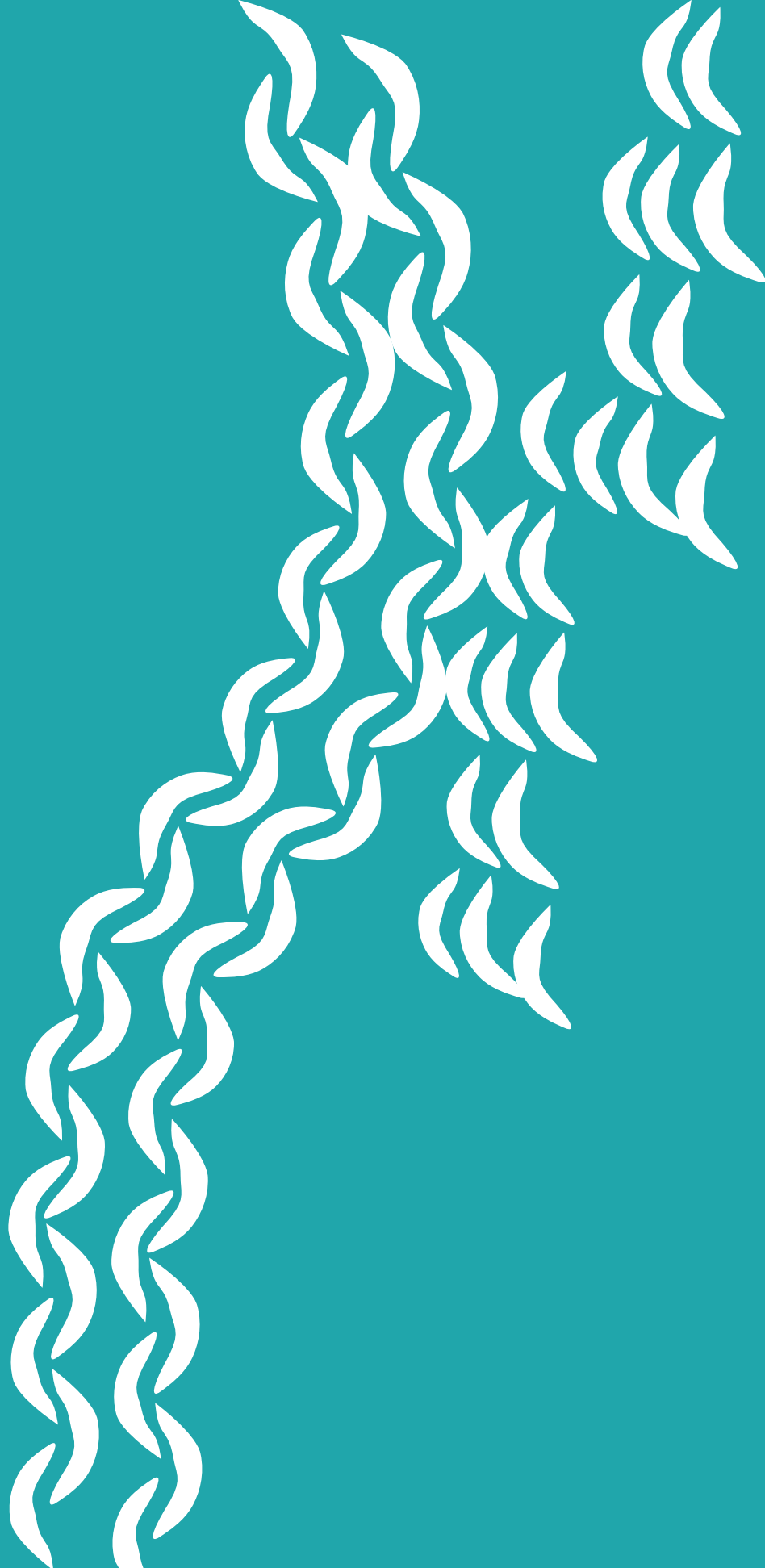
키코모리 청년이 이른 새벽에 옆 마을에 차를 몰고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돌아온다는 사실에 힌트를 얻고 그 할머니의 드라이버가 되어주기를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의 발이 되어주었고,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보물'이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 청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히키코모리 상태를 졸업했습니다. 살아가며 '일, 가정, 세 번째 커뮤니티'를 통한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할머니와 히키코모리 청년'의 사례처럼 강한 연대도, 약한 연대도 아닌 새로운 관계, 세 번째 커뮤니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희망, 좌절, 신뢰, 유대 등의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배움 & 희망 |

젠다 유지 교수는 강연 내내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찬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참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참여자들은 개인적 희망의 네 가지 요소(마음, 무엇, 실현, 행동)에 대해 배웠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인 희망(social hope)은 다른 사람(others)과 희망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무언가를 함께 행동해 실현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Social Hope is a Wish for Something to Come True by Action with Each Other." 희망의 네 가지 기동인 마음(Wish), 무엇(Something), 실현(Come True), 행동(Action)을 인상깊게 설명하기 위해 그는 앞 글자인 W, S, C, T, A를 동작으로 표현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미 개막식 기초강연에 첫 등장해서 서툰 기간 내내 상징이 되어버린 그 포즈를 참여자들 모두가 웃으며 따라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자로서는 파격적인 그 포즈는 아무리 목표를 정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희망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실현을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희망의 '사회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글 | 박정규(미라클, 공방팀)





PART 3 십표가 있는 교육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이 시대 교육포럼 1 전환학년제, 십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이 시대 교육포럼 4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비진학포럼 - 비진학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이', 새로운 상상과 확장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묻다



-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10:00
- 장소 | 신관 2층 원탁방
- 참여인원 | 20명
- 사회 |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 패널 | 쇠렌 라운비에르(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 교장),
클라우스 슈탈(IPC 부교장),
하태욱(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
- 통역 | 이병곤(<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 기획 |

교육부의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교육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을 지속해가기 위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 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교육 안팎을 아우르는 배움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는 덴마크 자유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대안교육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 지점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 진행 |

한국 대안교육계의 향후 과제를 기반으로 덴마크 IPC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과 클라우스 슈탈 부교장, 하태욱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포럼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선은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은 물론 덴마크의 포크하이스쿨의 전체 개요를 소개했으며 이후 클라우스 슈탈 부교장까지 무대에 올라와 하태욱 교수 및 청중과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포크하이스쿨 & IPC 소개 |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

- 설립 취지

덴마크 민주헌정이 수립된 1849년 이전인 1844년 설립되었다. 학교의 창설이념은 철학자 니콜라이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는데, 모든 인간은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그 학습 의지를 어떻게 북돋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이다.

- 교육 방식

현재 덴마크에는 65개의 포크하이스쿨이 있다. 포크하이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학교라는 것이다. 시험으로부터, 평가로부터, 등급 매기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교육방법을 선택하는 것 역시 자유다. 학생들이 광범위한 생각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지원, 즉 삶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 정부 허가 및 지원

프리스쿨의 목적과 취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설립하려는 목적과 가치가 덴마크의 헌정 체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설립이 허가된다. 지원액은 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는 운영을 위해 재투자된다.



IPC (International People's Collage) 개요

- 포크하이스쿨의 국제 버전으로 30여 개 국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학기제로 운영되며, 가을학기는 18주, 봄학기는 24주로 운영된다.

- 교육목적

세계에 대한 인식 확장

- 교육상의 특징

포크하이스쿨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직접적 대면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점이 포크하이스쿨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발견하는 것이 초점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 할 수 있고 어떤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비전을 설정하게 된다. 포크하이스쿨 내부에서는 스스로를 대안학교로 바라보기 보다는 공교육 학교와 함께 교호작용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 과정 중에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특징이 있는데 비언어적 감각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라고 한다.

▣ 질의응답 |

질문 | 자율성과 책무성은 서로 위배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덴마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운비에르 | 출석관리를 비롯한 학습의 질은 학교 스스로 관리하고, 연간보고서 발행을 통해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교육방식 등을 통제하는 것은 전혀 없고, 포크하이스쿨의 설립이념이 교육적 마인드와 지평을 넓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기술과 지식 교육만 이뤄지지 않나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즉 공식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지 않고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질문 | 정부와 학교 사이의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이 깨지는 사례는 없었는가?

라운비에르 |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도,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나라가 덴마크이다. 68%에 이르는 소득세는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20년 전, 교사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사례를 계기로, 재정에 대한 관련법규와 시행령이 강화되었다. 포크하이스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질문 | 포크하이스쿨의 교사교육 과정을 알고 싶다. 또한 대중과의 소통에 대해 고민 지점이 있다면?
라운비에르 | 교사 관리는 개별 포크하이스쿨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장과 교사협의체 간의 동의, 합의에 의해 교사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에 대한 평가의 경우, 학교가 학생을, 학생이 학교를 평가하며 이는 정부 요구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핵심적 교육가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평가한다. 물론 우리의 경험이 한국 사회와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스스로 영감을 얻어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중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답하자면, 대안교육 또는 포크하이스쿨은 긴 역사를 통해 학습에 대한 긍정적 동기화를 많이 달성해 왔기 때문에 덴마크 시민사회가 우리를 위험요인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는다. 덴마크 정부 역시 동기화된 학습자들을 다시 사회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포크하이스쿨이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높은 편이다.

슈탈 | 신뢰의 핵심은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고, 설득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상식적 기초(common ground), 아이디어와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을 공부하느냐보다는 어떤 수단으로 공부를 하는가에 더 집중해야 하고, 이를 상식적인 기초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인정받으면 신뢰를 형성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질문 | 교사 성장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라운비에르 | 포크하이스쿨연합에서 포크하이스쿨 교사자격증 코스를 열고 수료 시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수학습 기술을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이다. 포크하이스쿨에서 반드시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채용하는 것도 아니다. 포크하이스쿨연합에서는 평가보다는 기준, 철학을 만들어 가는데 더 집중한다.

질문 |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및 소통 방식은? 또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덴마크의 입장은 어떤가

라운비에르 | IPC는 학생들이 성인 연령대라 학부모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으나 낮은 연령대를 만나는 학교의 경우 관계가 공고한 편이다.

교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덴마크 사회는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교사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거나 특정 정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금지된다. 각자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여기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가치이다.

슈탈 | 프리스쿨의 경우 학교 이사회에 학부모 대표가 포함된다. 또한 재원 조성이 개인들에 의해 이뤄진 대안학교의 경우 부모들의 정치적 입장이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biased) 학부모들의 의견을 중립에 서서 조정해야 하는 역할이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다.

질문 | 교과과정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의 개입 여부는?

라운비에르 | 학부모가 교과 선정 개입은 할 수 없고, 교수법과 관련한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

▣ 마무리 코멘트 |

라운비에르 |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길을 열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양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로마로 이르는 길은 같겠지만, 그 길의 다양성은 인정해 주면 좋겠다. 아이들은 고속도로로만 달릴 수는 없다.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 오솔길로도 지나야 한다.

슈탈 | 교육이 모든 것일 수 없다. 공부가 모든 것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이들을 망친다. 아이들은 아이답게 놀아야 한다. 아이 시기(childhood)를 놓치면 그것으로 끝이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이 시기를 망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규격이 맞춰진 박스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꺼내 주어야 한다. 틀에서 꺼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놀게 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지 못하면, 우리는 한 세대를 잃어버릴 것이며, 어떤 사회에서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될 것이다.

■ 배움 & 희망 |

이번 원탁 포럼은 대안교육 법제화의 흐름에 앞서, 교육기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덴마크의 대안교육 법제화 사례 공유는 한국의 대안교육계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시대적 맥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이어지게 될 법제화 관련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국가독점의 교육체제를 넘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안교육 운동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논의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계기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글 | 홍성은(두부, 학교운영팀)

제도의 틀을 깨고 ‘틈’을 만든다



-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13:00 ~ 17:00
- 장소 | 본관 2층 999클럽
- 참여인원 | 50명
- 발제자 |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jerg, 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 교장),
현병호(대안교육연대 대표, <민들레> 발행인)
- 패널 | 정병오(문래중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오일화(함께여는청소년학교 대표,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획 |

저성장 고실업, 위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사회를 탐구하며 자활의 능력을 키우는 학습의 장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이에 삶에 밀착된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는 고민 속에 틈새 학교, 쉼표학교 등 유럽의 갭이어(gap year) 제도를 표방한 전환학교 모델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 19세기 덴마크에서 시작한 에프터스콜레는 형식적 직업훈련이 아닌, 학문적 교육과 삶을 위한 기술을 함께 배워가는 전환학교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삶의 계몽,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가치를 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에프터스콜레가 전환학교 모델로서 현재 한국교육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

본 포럼에서는 덴마크 시민대학 IPC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을 초대해 덴마크의 교육현장과 에프터스콜레, 폴케스콜레 등 전환학교 모델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한편,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안적 교육을 고민하는 여러 주체들을 함께 초대해 심화된 담론을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대안공간 민들레에서 청소년들과 틈새학교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현병호 대표, 학교 현장에 몸담으면서 자유학기제 등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정병오 교사, 지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만나온 오일화 대표를 초대해 사전 미팅을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자 지형을 잃어내는 시각과 고민은 달랐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환학년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뜻을 같이 했고, 그 출발이 될 단초를 덴마크 사례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 진행 |

자유학기제 등 정책적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선지 교사 및 활동가들의 참여가 많았다. 사전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의 원조 격인 전환학년제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자유학기제와 대안교실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하거나 마을학교, 또 학교 내에 고등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등 실제 학교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시스템 등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데, 학생들의 진로 또는 직업체험이 가능한 일터 발굴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비롯해 선포학교의 학제 인정 방식 등 실질적인 질문도 많았다.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배움의 기회에 참여하고 싶다, 대학생이 된 뒤에 휴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재설정하는 현재의 풍토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등 갭이어(gap year)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참여 동기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공교육과 대안교육 구분 없이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것도 전환학년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해 주었다.

첫 발제를 맡은 현병호 대안교육연대 대표는 ‘삶의 전환점을 위한 천 개의 해방구’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표준화, 규격화된 삶을 강요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대안교육운동의 확산으로 탈학교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업 중 쉬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전체 교육의 교과과정 중 전환학년제를 고민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보았다. 전환학년제의 목적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틈새’를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자유학기제, 학업을 잠시 쉬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는 전환학년제, 둘 다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프터스쿨레와 십대 후반, 이십대 초반 청년들을 위한 1년 과정, 짧게는 6개월 정도 과정의 배움터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하는 모델이라면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직원이 학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답답한 현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뒤를 이어 등장한 쇠렌 라운비에르 IPC 교장은 연기와 음악을 담당했던 교사답게 직접 피아노 연주와 노래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IPC의 동료 교사인 클라우스 슈탈과 함께 무대에 올라 ‘삶을 위한 배움과 스스로 시작하는 전환’이라는 주제로 덴마크 시민대학의 태동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들에 따르면 덴마크는 교육청이 학교 설립 허가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가치관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성향을 폭넓게 인정하며 학교 설립을 인가해 주는 개방적 시스템이라고 한다. 정부가 꼭 가르쳐야 하는 과목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만나 서로 교류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기의 어느 시점을 상정해 놓고 전환학교를 만들어가려는 한국 상황과는 달리, 덴마크는 이런 전환의 시기가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존재하며, 그들 모두 학업 과정 중에 쉬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수업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화와 표현이 중심이 된다.

19세기 중반의 혼란상황에서 그룹트비가 설립한 시민대학은 농민교육에서 시작되었는데 첨단기술이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예전의 역사와 연속성을 갖고 가려는 질문에 그들은 그룬트비의 정신을 이어가는 통합적인 시민대학이 여전히 존재하며, 대학마다 각각 중점을 두는 요소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물론 반드시 평생학습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다.

덴마크의 사례 발표가 끝난 뒤 토론자로 나선 정병오 교사는 한국교육현장에 대한 실제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유학기제는 시험 중심, 입시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전환학기제는 사춘기를 맞아 인생이 힘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쉬’를 줌으로써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유로운 덴마크 사회에서도 전환기가 필요한 것을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책적 요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학교 밖 배움의 공간을 만들며 꾸준히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오일화 대표는 자유학기제,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과 통합의 교육 등 수많은 정책적 과제를 쏟아내고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수많은 논의들이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되물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IPC를 대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 나왔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배울 수 있다, 굳이 학교 안 다녀도 된다, 자격증 안 따도 된다, 과정이 다 교육이다’ 등의 사회적 인식의 자리잡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민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요지였다. 이에 IPC 교사 클라우스는 “학교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인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마을이 학교를 위해 애쓰고, 또 일이 있으면 같이 싸워주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IPC는 시민대학으로 주 대상층이 청년들이다 보니, 한국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전환학교 논의와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쉬웠다. 덴마크 10대들의 상황은 어떠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0% 정도가 시민대학에 참여하며 나머지 90%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으며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역시 대부분 삶에 만족하면서 집에서도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편이라는 답변을 들려 주었다. 덴마크와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였다.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은 한국교육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전제한 뒤 “조금 더 자유로운 교육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배움 & 희망 |

예정시간 3시간을 훌쩍 넘기며 이야기가 오가면서 전환학년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은 복잡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인데, 전환학년제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면 시작도 못 하고 실패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입시제도 틀 내에서 먼저 성공모델을 만들고 경험을 넓혀 가면서 자유학기제 등 다른 것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환학년제의 ‘대상’이 누구냐고 했을 때 ‘비용’과 ‘선택’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 등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방치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게로 집중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전환학년제가 편향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사례에서 보듯이 근대에 만들어진 일률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틈을 만드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국의 표준을 카피해 한국적 표준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폭넓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형태 또한 마을학교, 여행학교 등으로 상상력을 넓히고, 쉬어가 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놓지 못하는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지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환학교를 고민하며 ‘인생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제도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이야기했다.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1년씩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 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채울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은 학교 설립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전환학기 혹은 전환캠프, 전환학년 등 짧고 다양한 실험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로 전환학년제는 고민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사실 전환학년제도 ‘쉬는 게 정상이다’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에서 사고가 작동하게 된다. 교육청으로서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싶으나 실제 제도는 위기를 강조하면서 조심하려고만 하는 측면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든 생각은 준비과정이 좀 더 탄탄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모델 프로젝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학생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포럼을 통해 물꼬를 튼 ‘전환학년제’에 대한 논의는 ‘삶을 위한 교사 대학’에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말은 ‘빨리빨리’인 것 같다. 우리 교육제도, 문화가 무언가에 몰입할 수 없는 교육제도,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쉬엄쉬엄’ 이야말로 제대로 몰입하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다.”라며 맺는 말을 대신한 현병호 대표는 전환학교 논의를 교육운동 차원에서 폭넓게 공론화시키고 이를 <민들레> 등 미디어를 통해서도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에서 배움터를 열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많은 지역 활동가들,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적용해 다른 방식의 배움을 시도하려는 교사들, 정책으로 입안해 틈을 만들어내려는 교육청 등 여러 움직임이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한 번의 포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전환학교를 표방한 여러 학교들의 실험 및 현실화로 진화할 것을 기대해본다.

교육의 의미, 배움의 기쁨을 먼저 묻다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일요일 10:00 ~ 13:00
- 장소 | 신관 203호
- 참여인원 | 96명
- 발제자 | 앤드류 프리슈먼(Andrew Frishman,
미국 Big Picture Learning 프로그램 개발책임자)
- 진행 | 김경옥(공간 민들레 대표)
- 패널 | 홍인기(상탄초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윤귀호(풍물교육연구소장, 경기도교육청 인수위 실무위원),
서용선(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오일화(함께여는청소년학교 대표),
장재영(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김민찬(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연구팀)

■ 기획 |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학교다’를 모토로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움직임이 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학교 등 교육정책 영역에서도 이러한 요구와 움직임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직은 애매모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를 넘어선 학교’로서 지역과 함께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 공립형 대안학교 메트스쿨(Met School)과 메트스쿨식 배움의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비영리 교육연구소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을 만나, 그간 그들이 실천해 온 다양한 ‘학교 밖 학습(leaving to learn)’의 사례를 듣고, 이를 현재 우리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연결지어 보려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하자센터와 공간민들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으며 전체 진행은 김경옥 공간 민들레 대표가 맡았다. 메트스쿨의 사례를 들려줄 발제자로는 빅픽처러닝의 프로그램 개발책임자인 앤드류 프리슈먼(Andrew Frishman)이, 통역은 교육공동체 ‘벗’의 편집위원인 이병근 박사가 맡았다. 한정된 시간 안에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힌트를 발견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발제가 끝난 뒤 그간 학교 안팎에서 마을교육을 꾸준히 고민해온 교사와 활동가들이 한 시간 정도 집단 토론을 통해 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집단 토론을 맡은 패널단은 3회에 걸친 사전모임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문제의식을 첨예하게 다듬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모임에서는 발제자인 앤드류 프리슈먼도 함께 해 전체 흐름은 물론 한국 고유의 상황까지 공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애초 기획 과정에서 2인이었던 패널이 6인으로 대폭 늘어났다. 학교 안팎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다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장소는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으로 결정되었다.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70여명 선. 사전신청 없이 참여할 인원까지 고려해 사전신청자는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둥글게 모여앉아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해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 진행 |

모집과 동시에 공시된 인원이 단시간에 마감되는 것을 보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 신청자 50여명을 포함, 당일 현장 참여자는 패널단을 포함 1백여 명에 가까웠다. 여건상 적정인원 70여명이 채워지면 입장을 제한하자는 방침이었지만 일요일 오전에 뜻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결과였다. 발제자와 패널단이 앉은 원탁을 중심으로 반원형의 플로어석이 가득 채워졌다. 덕분에 패널단과 플로어석 간의 물리적 거리감(?)은 없었지만, 사전 신청에서 보였던 열기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규모를 키우거나 현장참여를 확실하게 제한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참여자 중에는 특히 교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신청동기가 '21세기 학교는 완결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안팎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마을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아래로부터(학교 내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려는 자발성)가 아닌 위로부터(정책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 '교육과정의 일부로 지역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마을을 위해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의견이었다. 몸이 닿는 곳, 발이 닿는 곳을 마을로 여기던 시절을 생각하면,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상을 하고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지금의 도시에서 마을은 사라진 단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다시 마을을 이야기하는 지금, 새로운 해석과 개념 정리가 필요했다. 이에 진행을 맡은 김경옥 대표는 "말이 가 닿는 곳이면 그곳이 우리의 마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전체 포럼을 열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그 말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마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앤드류 프리슈먼의 발제는 “여러분은 왜 교육자가 되려고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고, 그 시기에 자신을 바꾸게 한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제안에 메트스쿨의 기본 원리와 학교 운영방식이 담겨있는 듯 했다. 교육은 60점짜리 학생을 70점짜리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에 학교에서의 학습을 초월한 학교 밖에서의 발견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유용가치를 찾게 되며,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어떤 도움을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현재의 배움과 자신의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래 의미이며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배움의 기쁨이라는 뜻일 것이다. ‘왜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묻고 답을 찾는 것이 학교 안팎의 연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메트스쿨은 교사의 역할 변화를 학교 혁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는 듯 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내려놓고, 학생과의 새로운 관계설정-미래세계를 위한 준비를 돕는 조력자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트스쿨은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턴십 학습으로 유명한데, 이때 인턴십 현장을 교사들이 직접 발굴하거나 섭외해서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학생들 스스로 원하는 현장을 찾아내고, 직접 이메일이나 신청서를 보내며 주체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교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고 했다. 교사가 권력자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중요한 건 결과적 효율성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조력자로서의 교사는 학생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만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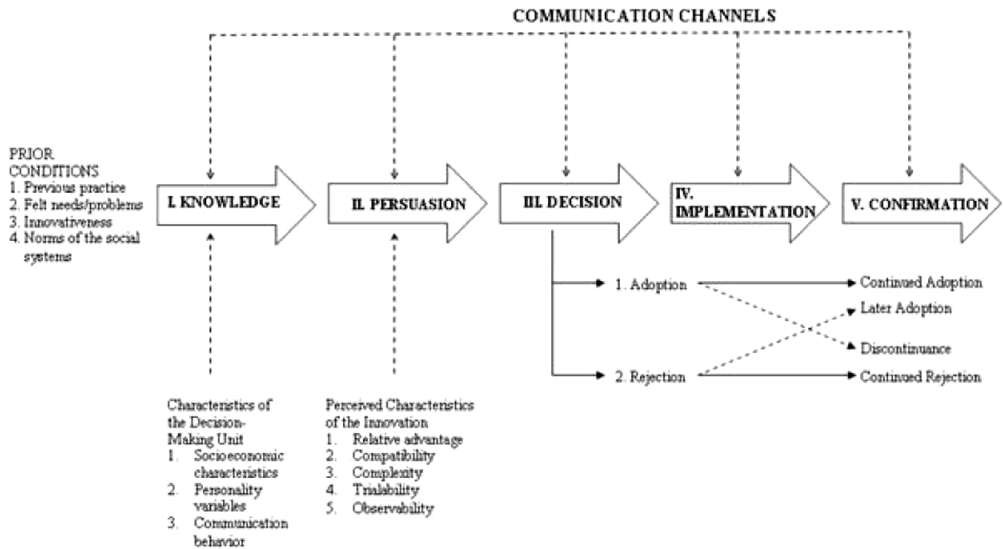
학교 밖에서의 경험과 학습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 교사가 질문했다. “학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반대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학교 안과 밖 사이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두고 있는 듯한 질문이었다. 이에 발제자는 “인턴십 학습은 학교 밖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한 학생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교실로 돌아와 전통 교과과정을 배우는 것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 배움 & 희망 |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깊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난감하기는 학교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로인 듯 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 공동체적 마인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마을 공동체라는 말도 생소하고, 집은 있지만, 마을은 없이 자란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과 연계해 나갈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지역에서 풍물교육을 해온 한 활동가 역시 “마을을 통해서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마을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다”고 고백했다. 이에 발제자는 핵심 추동세력, 코어그룹이 4인 이상 될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메트스쿨이나 빅픽처러닝과 같은 일이 한국사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서로 배우려고 여기 모인 것. 여기 모인 사람들과 대화하고, 돌아가서 또 얘기하는 것이다. 작은 조직부터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은 정부나 정책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메트스쿨이 어떻게 가치와 원리를 확산시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에버렛 로저스의 혁신의 확산 이론이다. 개인이나 조직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담겨 있다.



1. 지식: 혁신을 이해하고 혁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단계
 미디어와 캠페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과 루트로 새로운 정보를 배출.
2. 설득: 혁신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
 설득과정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개인이나 조직은 단번에 결정하지 않고, 마치 농구의 피벗팅처럼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활동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3. 결정: 혁신을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단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식-설득-결정의 순서를 따르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지식-결정-설득의 순서로 혁신이 채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실행: 혁신을 실생활에 사용하는 단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혁명적으로 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행한 결과를 평가해가면서 천천히, 서서히 문제를 보완하며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빅픽처러닝같은 조직이 돋보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질문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빅픽처러닝 같은 조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5. 확인: 혁신의 수용여부를 확고히 보강하는 단계
 새로운 아이디어를 완전하게 수용하거나 정착시킨 개인이나 조직은 지금까지 빅픽처러닝이 해왔던 것처럼, 교육적 가치와 방법들을 다른 학교에 나눠준다. 개별 교사, 단위 학교, 학교 구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다층적으로 이뤄질 때 변화와 혁신이 확산된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그 변화를 일궈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 그 당사자가 무게를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할 차례인 것이다. 사교육시장이 40조원에 육박하고, 수능성적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과도한 입시전쟁 속에서 교육의 본래 의미와 배움의 기쁨을 되찾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

야 할 무거운 것이다. 이것은 절대 학교 하나만의 혁신이나 시스템 변화로 이뤄질 수 없다. 학교 안과 밖, 나아가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상호보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숙제이자 변화이다. 무언가 시스템을 뒤흔들 위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변화를 만드는 힘, 혁신의 확산은 작은 단위부터의 꾸준한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것. 그렇기에 정부 정책이나 매뉴얼 등으로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조금 해하지 않고 천천히 정확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 지치지 않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동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글 |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유예의 시간’을 가질 권리



- 일시 | 9월 26일 금요일 10:00~12: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참여인원 | 40명
- 패널 | 박진숙(주식회사 연금술사 대표), 이충한(사회적기업 유자살롱 공동대표), 강정석(지식순환협동조합 사무국장)

■ 기획 |

일반고 공동화 현상과 함께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선상에 있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생애사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산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일 것이다. ‘비진학포럼 - 비진학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2013년 서울시의 의뢰로 진행했던 비진학 청소년 연구를 기반으로 비진학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공유한 뒤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초기에는 비진학 청소년 연구의 선임 연구원인 엄기호 선생과 이후 하자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현장 사례인 ㈜연금술사의 ‘연금술사 일학교’ 공유라는 양 축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엄기호 선생이 개인 사정상 빠지게 되면서 비진학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각기 다른 상황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거나 이들과의 일을 기획하고 있는 세 현장 그룹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전환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일-학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연금술사 일학교’와 정서적으로는 크게 위급하지 않으나 관계적 공백 상태가 길어진 ‘저중력’ 상황의 청소년 및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대중음악 분야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청소년은 물론 세대를 포괄해 지식과 경험의 순환을 통한 대안 협력 교육을 모색하고 있는 ‘지식순환협동조합(지순협)’이 사례를 공유해 주기로 하였다.

■ 진행 |

‘비진학’이라는 사회적 현상 혹은 개념을 중심으로, 비진학 이후의 삶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는 자리로서 우선 2013년 진행된 비진학 청소년 연구에도 참여한 강정석 지식순환협동조합 사무국장이 비진학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맥락에 관한 설명을 1차 진행한 뒤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주식회사 연금술사, 지식순환협동조합이 각각 ‘무중력 상태’, 노동, 공부에 관한 사례를 들려주고, 시간의 유예, 시간의 짜임, 책임의 나눔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발표팀 소개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으로서 2010년 노동부 인증을 받았다.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음악인들의 공동체로서 대중음악, 밴드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놀이와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다양한 공연과 창작활동도 펼쳐 나가고 있다. 2010년 가을부터 탈학교 비활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한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 '집밖으로 유유자적'을 진행해오고 있다.(<http://yoojasalon.net/>)



주식회사 연금술사 |

2010년 하자센터의 '연금술사프로젝트'로 출발했다.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 후기청소년(18~24세)의 자립기반 확보 및 일을 통한 성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와 사회적기업 인턴십을 병행하는 일학습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인턴십의 한계를 깨닫고 다음 해에 창업 과정을 개설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이하 청소년)들과 함께 2011년 5월 도시락가게 '소풍가는 고양이', 12월 컵케이크 카페 '달콤한 꼬끼리' 창업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일터 모델 만들기에 돌입함과 동시에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에는 JP모간이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생(自生), 삶의 기반' 중 한 프로젝트로 '연금술사 일학교'를 열어 청소년들을 만났다.(<http://somssizip.org/sogo>)



지식순환협동조합 |

지식순환협동조합'은 경쟁사회와 경쟁교육을 넘어, 협력사회와 협력교육을 실천하는 대안대학의 필요성에 공감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한 대학교수들, 대학 바깥에서 2009년부터 2,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80개의 강좌 기획을 통해 예술-인문학 교육의 대중화를 실천했던 '자유예술캠프'의 기획단, 그리고 자연과학·여성학·사회과학·정치경제학·인문학·문화연구·예술창작·문화기획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마음을 모았다.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 2014년에는 '지순협 대안대학'을 개교해 운영하고 있다.(www.freeuniv.net)



'비진학'이라는 주제를 공유하는 자리이긴 하나 패널들은 각자의 발표 및 사후 토론을 통해 이 주제 자체부터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비진학이 단순히 청소년과 중등-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문제라기보다, "저성장 고실업 사회"(강정석)의 문제, 즉 "직선적인 삶이 무너지고 노동이 변해서"(박진숙) 변화를 요구받는 사람들의 문제이자 그간 학교에서 행해진 "단선적인 직업능력 교육"(이충한)이 처한 문제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충한 유자살롱 공동대표는 비진학 상태를 부정하는 시각을 비판하며, 특히 비진학 청소년 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못하는 "무중력 상태"의 조건과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진정한 문제는 진

로 멘붕, 이른바 '비진로'라고 지적했다.

박진숙 (주)연금술사 대표 또한 학교 및 대학과 더불어 노동이 변화했음을 강조하며, 중퇴, 탈학교, 졸업생 등 자신이 만난 다양한 비진학 청소년들이 '실업자'의 모습에 가까웠으며, 하나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텅 빈 시간”,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쉽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어떻게 그것이 연결 불가능한 단절이 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질 좋은 노동을 확보하고 교육이 선물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강정석 지식순환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진학/비진학 구분에 의문을 표하며, 학교생활의 연장인 기업문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 비진학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진학과 비진학 사이에서 앞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의 시간을 갖되, 그 시간을 사람들과 같이 하는 공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세 발표자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각자 “무중력 상태”, “텅 빈 시간”, “유예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라이프 코스, 커리어패스의 공백기 혹은 휴식기에 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환학년제 논의와 이어지지만, 학교(교육)와 일터(노동)의 연결 지점을 둘러싼 고민들을 전면화했다는 것이 비진학 포럼의 특징이다. 따라서 주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왜 시간의 유예가 필요한가? 시간을 어떻게 제대로 보낼 수 있는가?’였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시간의 불가피성이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단절과 고립으로 빠질 위험성을 경계했다. 특히 (예비) 노동자로서 후기 청소년들의 시간 관리를 이야기할 때,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유예의 시간”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인상적인 코멘트

내 능력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잘 직면해서 나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든 사회에서 소용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요만큼 일자리 있어.” 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_이충한

자기 돈벌이도 자기가 책임지고, 또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자아를 가진 사람이 지금 노동세계에서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의 진로를 얘기할 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럼 맞는 걸까요? 맞다, 옳다가 아니고, 바람직할까요?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_박진숙

한편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여전히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책임을 안 지고 있거든요. 거의 교육시장을 민영화할 정도로 다, 사교육 쪽으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사회적 책임을, 이런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신 힘들게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의 맥락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_강정석

학교에서 질 좋은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노동을 이야기 안하고 대신 ‘직업’을 이야기하거든요. 직업하고 노동은 다른 문제예요. 아까 이충한 공동대표도 ‘기초 역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에 대한 기초역량을 만드는 것, 질 좋은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단할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 좋은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이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전 노동 예찬론자는 아니에요, 절대로. 노동 굉장히 고돼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수 있다면.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실제로 노동에도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노동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거라면, 희로애락을 다 이야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희로애락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이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_박진숙

■ 배움 & 희망 |

이번 포럼에 참여한 세 패널 그룹은 비진학 연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공유했으나 이에 대한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비(非)라는 표현 자체가 지니는 부정적 정서, 또한 누구나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단선적 과정임이 암시되는 진학(進學)이라는 표현 등 비진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사고틀에 맞춘 것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실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청년의 상황을 하나의 개념 안에 묶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그들은 비진학을 ‘현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선택’의 문제로 보았으며, 너무 오래 머물러 단절되지만 않는다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성찰할 수 있는 전환의 시간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비진학에 대한 세 그룹의 다양한 문제의식이 발제 및 이후 토론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된다.

비진학을 비롯해 현재 청소년, 청년이 처한 상황에서 학교 및 사회의 역할은 상당 부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 발제 그룹이 공교육 현장 및 정책 당국 등 ‘저들’에 대해서도 연계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두루 냈기에 참여자들 가운데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낳았다.

사전 신청자 및 현장 신청자 리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참석자 중 3/2 이상이 대안학교 교사 및 청소년이었으며 나머지는 수련관 등 청소년 교육현장 활동가, 대학생 등이었다. 이미 사전신청 시 이런 구성에 주목, 대안학교 청소년들까지 감안한 진행(공교육 현장에 대한 설명 강화 등)으로 선회했으나 객석에서 그들의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비진학의 개념 자체가 공교육 현장에서 주로 대두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일까? 비진학과 같은 유예 상태는 대안교육 청소년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는가? 문득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다. 일반고 등 비진학 연구 및 발제에서 주로 인용되는 당사자 그룹과의 포럼이라면 분위기가 어땠을까. 언젠가 한번 이번 포럼에서 던졌던 화두인 ‘시간의 유예’에 대해 다음에는 그들과의 대화 자리를 기획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글 | 김혜영(걸음, 협력기획팀),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틈과 결이 있는 우정과 환대의 마을

- 일시 | 9월 27일 토요일 10:00~12: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참여인원 | 28명
- 발제자 | 박정이(와방/오방 놀이터), 민경은(다요/여러가지 연구소), 민지은(하루/하자센터)

■ 기획 |

위험사회라 불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왜 다시 놀이에 주목하는가? '사례공유포럼@놀이'는 놀이마져 사교육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현실에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의 힘이 살아있는 마을로 확장된 놀이터를 그려보면서, 지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노는' 다양한 팀의 사례를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로 마련되었다.

본 포럼은 '체험'이나 '효과' 위주의 놀이에서 생각을 전환해 '실 틈, 심심할 틈이 있는 일상' '우정과 환대의 관계가 살아있는 마을', '야생성과 회복력을 지닌 사회'의 놀이를 이야기해보는 자리이다. 더불어 하자센터 안팎의 놀이 관련 그룹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향후 학교 및 타 지역 현장과 만나는 접점들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다. 세 가지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틈' - 일상이 놀이가 되는 시공간 / 오방놀이터
- '생' - 어느 청소년의 물음 "당신의 인생은 교과서인가요?" / 여러가지 연구소
- '결' - 청년, 놀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다 / 하자센터(생각하는 청개구리 청년 놀이활동가 사례)

이 외에도 손쓰는 작업(만들기)를 통해 심심함과 즐거움의 의미를 체득해가는 그룹인 '뽕뽕이공작'이 마련한 놀이 워크숍이 서밋 달마당과 연계해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관 1층 중정에서 진행되었다.

하자센터의 사례 외에 두 발제팀의 사례는 서밋에 앞서 9월 초에 열린 놀이 난감모임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놀이 난감모임은 사회 저변의 자연스러운 놀이 문화가 확대되려면 놀이 관련 팀들의 공통 기반과 언어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서밋 전후 2회 진행되었다. 다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놀이마져 난감해진 시대'를 이야기했던 모임에서 오방놀이터와 여러가지 연구소의 이야기를 듣고, '틈'과 '생'이라는 서밋 주제에 맞춰 초대를 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하자센터의 파트너로서 놀이터를 열고 다른 세대를 만나고 있는 10명 내외의 놀이활동가들은 포럼 준비 및 진행에 참여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 진행 |

포럼은 김찬호 하자센터 부센터장(알로하)의 진행으로 세 팀의 사례를 듣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망원에서 가족놀이터 겸 커뮤니티 공간을 꾸리고 있는 오방놀이터는 일상의 ‘틈’, ‘겨울’을 내어주는 시간, 공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부천의 청년 그룹인 여러가지 연구소는 도시를 새롭게 보고 그 안에서 즐겁게 생존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규칙이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 길들이는 사회에 대해 꼬집은 청소년들과의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하자센터의 놀이활동가 사례 발표에서는 후기 청소년-청년 세대가 놀이터에서 다른 세대를 만나는 과정, 그 가운데에서의 고민, 서로 배움이 되는 전환의 시간에 대해 나누었다. 발제 중간에 놀이활동가 두 명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기관 관계자, 대안학교 교사 및 학생들, 공교육 교사, 대학생 등이 고루 참여한 포럼이었다. 그 가운데 반갑게도 과천 중등무지개학교에서 ‘놀이’를 주제로 1년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과 교사가 방문해 의미 있는 만남으로 연결되었다. 질문 시간에 학생들이 “왜 놀이를 할 때 자꾸 싸움이 날까요?”라고 질문해 모두가 함께 웃기도 하고, 발제자와 객석의 참여자가 “이는 모든 세대에 걸친 특성”이라고 답하기도 하면서, 놀이를 둘러싼 세대 간의 공감대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후 중등무지개학교 교사는 이번 포럼에 대한 깊은 반가움을 담은 소감을 남겼다.

“현장에서 올 한 해 놀이를 주제로 중등과정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마침 이런 포럼을 만나 나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우리시대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틈’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하자의 마을놀이터가 지향하는 그림에 대해 들으며 놀이터가 어떠한 모습이면 좋을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 과천 중등무지개학교 중등 교사

‘생각하는 청개구리’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이후 회의에서 포럼에 대한 의견을 밝히 주었다.

“사례공유포럼을 들으며 놀이에 대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방놀이터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와 놀이터들을 지원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하자에서 마을놀이터가 열릴 때 놀이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풀(pool)을 발굴해 성장하는 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 한국암웨이 사회공헌팀 ‘생각하는 청개구리’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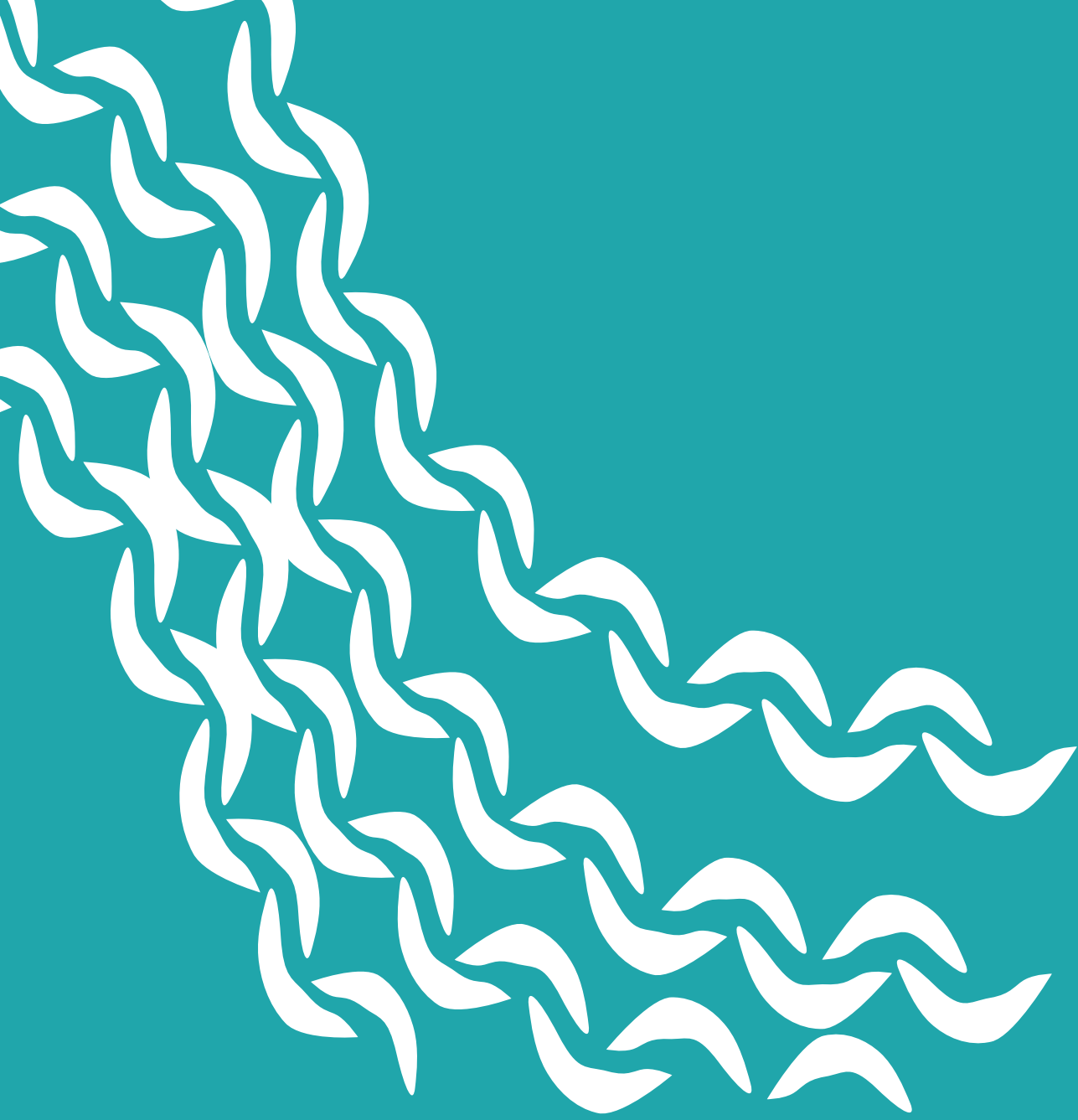
■ 배움 & 희망 |

해외 게스트의 강연이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많았던 이번 서밋에서 '사례공유포럼@놀이'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나름의 대안을 찾아가는 현장 팀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대에 놀이가 가진 힘이 무엇일지, 참여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과천 중등무지개학교 교사는 이후 만남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살림수업 공유 마당을 학교 내부와 외부인 사이의 경계가 없이 하나되는 놀이판으로 꾸며보고, 이후 학교가 이사한 뒤에 청소년과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볼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도 놀이에 대한 이야기마당은 계속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창의서밋 전후로 만난 여러 팀들과 청소년이 놀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모여져 향후 만남을 가져 볼 예정이다. 말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 고유의 힘이 살아있는 마을놀이터가 곳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 민지은(하루, 허브팀)





PART 4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협업 및 부대행사 - 드로잉 프레스

협업 및 부대행사 - 리얼타임 그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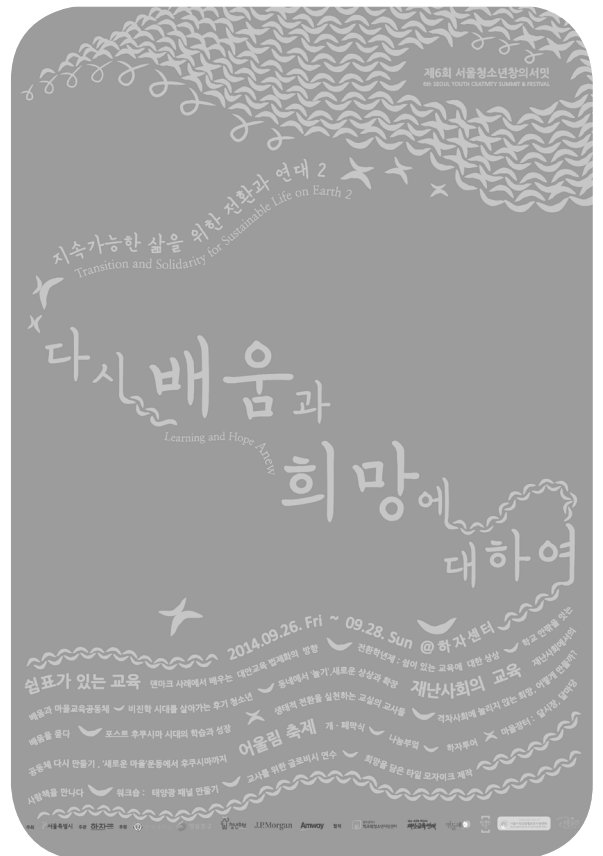
배움과 희망을 위해 풀고, 엮는 그물코



- BI 기획 및 디자인 | 이한나(고나, 허브팀)
- 편집 디자인 | 오혜리(프리랜서)
- 대외 홍보 |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 웹 | 김세중(풀무, 협력기획팀), 이미진(프리랜서)
- 대외협력 | 박형주(올제, 기획부장)
- 영상 | 정해령(루나, 협력기획팀), POST 1895 공작소

- BI |

2013년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에 대한 모색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위기에 부딪친 배움을 계속하는 길,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불러올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2014년 창의서밋의 방향성이었다. 이에 따라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BI는 올해의 메시지를 담아 다시 디자인했다. BI 디자인을 맡은 판돌 고나는 올해 서밋 취지문 중 '탈바꿈' '해방적 파국'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얻어 메인 포스터를 제작했다. 특히 이번 서밋이 '세월호 이후' 사회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일상에서 누구나 한번은 해봤을 '뜨개질'에 비유해 보았다고 한다. 해본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코'를 빠뜨려 구멍이 숭숭 뚫는 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실을 당겨 그동안 떠왔던 것을 풀어야 하는데, 이는 실로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탈바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실을 당겨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며 한 코 한 코 기쁘게 연대하며 '다시' 희망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꿔본다는 의미를 담았다. 블루와 옐로 컬러가 주를 이루는 2015년 메인 BI는 포스터(온 & 오프라인), 브로슈어(국문, 영문), 웹 초대장, 옥외 대형 현수막(5mX5m) 등 홍보물에 두루 사용되었다.



■ 홍보 |

대략적인 일정 및 내용, 특히 내한할 해외 키노트 스피커들이 정해진 후에는 관련 분야 언론 대상으로 기획 기사를 제안했으며 결과가 좋아 이미 개막 전에 주요 게스트 및 하자센터장과의 인터뷰 등이 사전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식 보도자료는 개막 3주 전부터 시작해 시차를 두고 총 4회 배포되었다. 1회에는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전체적인 정보를 전달했고 2회에는 전환학년제, 대안학교 법제화, 비진학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 등 현 교육현장의 현안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이슈를 다루는 포럼, 대담, 강연 등을 주로 소개했다. 3회에는 2015년 JP모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의 지역 기반 일자리-진로교육 통합 모델인 '연금술사 일학교'와 지속가능성 분야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자립주택 건축을 통해 청년 전문가를 키워내는 '살림집' 프로젝트 등 두 혁신 교육 프로젝트가 다뤄지는 포럼 및 워크숍을 집중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4회에는 지속가능한 삶을 모색하는 '마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네트워킹 행사들에 대해 다뤘다. 참여자 모두가 밥 한 끼를 함께하는 나눔부엌,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는 '사람책을 만나다', 마을장터 '달시장' 등을 소개해 '축제'로서의 창의서밋을 부각시켰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 등 기존 홍보 루트를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 홍보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일반 교사, 대안학교 교사, 청소년 활동가 등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모으고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했다. 각종 포럼과 워크숍 신청은 아카이브 하자(archive.haja.net)를 통해 개설해 신청자들이 다른 워크숍 및 부대행사들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오픈해 자공공 아카데미의 콘텐츠 및 이를 주관하는 하자허브의 동향을 전달하고 있는 자공공넷(<http://jagongong.net>) 메인 페이지를 서밋 체제로 전환해 취지문, 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정보들과 함께 메인 게스트 소개부터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서밋을 둘러싼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 또한 서밋 기간 중 매달 한 번 발행되는 하자마을 뉴스레터 역시 서밋 체제로 전환, 기간 중 총 5회의 온라인 뉴스레터를 하자넷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했고 이를 하자센터 홈페이지 및 자공공넷에 연동시켜 더 많은 이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서밋 기간 중에는 모든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영상에 담았는데 특히 개막식의 키노트, 강연 등은 편집 없이 촬영해 자막 작업 등을 거쳐 게시했다. 3일간의 여정을 담아낸 스케치 영상을 비롯해 모든 서밋 관련 영상들은 하자센터의 비메오 계정(<https://vimeo.com/haja>)에 올려 놓았으며 자공공넷 내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영상 아카이브에서도 연동된다.

■ 주요 기사

절망의 사회, 청년들 '은둔'과 '일베'로 내몰아 (경향신문, 2014.09.28)

-조한혜정 하자센터장과 겐다 유지 교수 대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60201&artid=201409282128535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_덴마크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 방향 | 대담(격월간 민들레 vol.95)

-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취재

<http://www.mindle.org/xe/520635>

한국교육, 이대로는 망한다 (프레시안, 2014.11.07)

-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취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49>

선착순 달리기엔 내몰린 아이들... 지금 필요한 건 성찰과 씬(조선일보, 2014.10.14)

-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3/2014101302273.html

■ 대외협력 |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서밋 취지에 공감하는 외부 네트워크 그룹들과의 협업 결과로 실현되었다. 기존 파트너였던 한국암웨이(생각하는 청개구리), 영등포구청(달시장), JP모간(연금술사 일학교, 살림집 프로젝트)가 서밋에도 힘을 보태줘 정식 협력 및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세부 프로그램 역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룹들과의 사전 기획 및 진행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대안교육연대와 함께 한 ‘원탁포럼-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이 있다. 교육부의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교육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을 지속해가기 위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 가기 위한 논의의 장을 대안교육연대와 공동으로 마련해 보았다.

‘이 시대 교육포럼 4-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역시 공동 기획,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교육계 전반으로 ‘학교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떻게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배우는 학습을 설계할 것인가 논의해 보는 장을 서울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도서출판 민들레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포럼을 계기로 발제자인 앤드류 프리슈먼이 몸담은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BPL)의 <Leaving to Learn>(한국어판 제목은 <넘나들며 배우기>)이 국내에 번역 출간된 것도 성과로 꼽을 만하다.

또한 전환기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키노트 스피커인 덴마크 국제시민대학(IPC)의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과 클라우스 슈탈 부교장의 광주지역 강연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글 |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종이와 펜으로 빚어내는 공동의 창의



- 일시 | 9월 26일~9월 28일 10:30~18:00
- 장소 | 신관 2층 허브갤러리
- 참여인원 | 100여 명

■ 기획 |

창의서밋을 찾는 사람들은 3일간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자신의 타임테이블을 짠다. 3일간 압축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강연과 대담, 워크숍 등에 동시에 참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 서밋의 면면을 모두 알기란 불가능하다. 창의서밋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 모두가 기자가 되어 소식을 알려준다면?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올해 창의서밋의 이벤트로 등장한 '드로잉 프레스'이다.

현장의 생생한 기록은 단 한번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높은 집중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드로잉이라는 즉흥적이고 간결한 그리기 행위를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프레스 단'을 꾸렸다.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종이와 받쳐놓고 쓸 수 있는 단단한 판지, 다양한 펜과 색연필 등을 프레스룸에 구비했다. 프레스단으로 활동 중임을 나타내는 'PRESS' 목걸이와 어린이 참가자를 위한 스티커도 준비했다. 또 청년 자원활동가들이 결합해 드로잉 프레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참가 방법을 설명하는 활동을 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그림을 수집하고, 이를 갤러리 벽에 전시하는 역할도 해주었다.

■ 진행 |

3일간 진행된 창의서밋에서 드로잉 프레스단의 활동은 첫날 저녁시간에 벌어진 서밋 달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다. 서밋 달시장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이고 풍성한 사람들의 활동이 어린이 참가자들의 그림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고, 그들의 활동이 달시장을 더욱 활기차게 북돋는 시너지를 발휘해낸 것이다. 홍콩, 일본 등지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메시지나 하자에서의 인상을 남기는 '방명록'의 구실도 했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이 바쁘게 펼쳐지는 서밋 기간 중 허브갤러리의 조금 한가롭고 조용한 분위기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의 휴식시간에 조용히 다른 참가자들의 그림을 구경하거나 골똘히 생각에 빠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 배움 |

현장에서 즉석으로 실험삼아 펼쳐진 드로잉 프레스는 그 자체로 가볍고, 재미있는 이벤트로서의 효과를 누렸지만, 더 나아가 깊이 있는 구성의 기록을 남기기에는 한계가 보였다. 또 하나의 서밋 콘텐츠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성된 프레스단을 코어그룹으로 두고, 현장에서 다양한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로잉 프레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창의서밋을 통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쓰고, 또 공유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각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본 장면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마음에 와 닿은 특정한 순간을 다시 불러와야만 했을 것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갤러리에 드문드문 앉아 작은 메모장에 자기 생각을 끄적이고, 그림을 그려내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각자의 경험이 다양한 차원으로 변환되고, 기록되는 느낌을 받았다.

■ 희망 |

드로잉 프레스를 통해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한 장소에 앉아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은 인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강연 등 참여자 간 소통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보완적인 역할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하자는 학기, 방학 중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 중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매년 열리는 창의서밋이라는 큰 축제를 직접 기록하고 동시에 전시하는 드로잉 프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자에서의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창작 작업을 통해 순환시키면서 온전한 자기만의 경험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글 | 이한나(고나, 허브팀)

서밋과 대중을 이어준 청년 메신저



- 일시 | 2014년 9월 26일 ~ 9월 28일
- 장소 | 하자센터 곳곳
- 참여 | 박지현, 장지현, 이정규, 조종환, 박준서(연세대학교)
- 기획 |

창의서밋은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언론 대상 보도자료와 하자넷, 뉴스레터, 하자센터 SNS(트위터, 페이스북), 자공공넷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소개된다. 그러나 주최측에서 전달하는 소식은 말 그대로 '정보'에 그칠 우려가 있다. 서밋 기획팀은 서밋 현장에서 오고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참여자의 입장에서 일반 대중과 나누는 중개자가 있었으면 했고 마침 자공공아카데미 등을 통해 하자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의기투합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리얼타임 그래퍼는 창의서밋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사진과 짧은 감상을 하자센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업로드, 대중과 공유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하자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더해 직접 서밋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 한편으로는 참여자의 시선으로 축적한 기록물로 창의서밋의 다양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하자 하자센터
9월 26일

[리얼타임그래퍼_다담]
밀양과 후쿠시마에서도 창의서밋으로 와 주셨어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당신은 희망은 무엇입니까?'라고
유지겐다 교수님께서 묻습니다.
저는 희망은 '그들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란 생각을 했어요.



■ 진행 |

사전에 구성된 리얼타임 그래퍼 5인은 창의서밋 기간 2박 3일 동안 하자센터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글쓰기 권한을 승인받아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 총 25개의 현장 기록을 실시간으로 작성했다.

- ▣ 1일차 / 9월 26일 / 게시물 총 12건
- ▣ 2일차 / 9월 27일 / 게시물 총 8건
- ▣ 3일차 / 9월 28일 / 게시물 총 5건

하자 하자센터
9월 27일 수

[리얼타임그래퍼_마주]

하자센터의 신관에 서잇 강연들과 관련된 책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토마스 피케티교수의 '21세기 자본'부터 오늘 강연하신 태사 교수의 책까지 ☺ 제가 저번주에 읽었던 '내릴수 없는 배'도 보이네요~



■ 배움 & 희망 |

리얼타임 그래퍼는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기획으로 이루어졌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행사를 풍성하게 하는 일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창의서밋 안에서 '창의적 공공지대'를 구현해낸 긍정적인 시도였다. 공식/비공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스스로 기획해 낸 '배움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창의서밋의 부제였던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에 부합한 활동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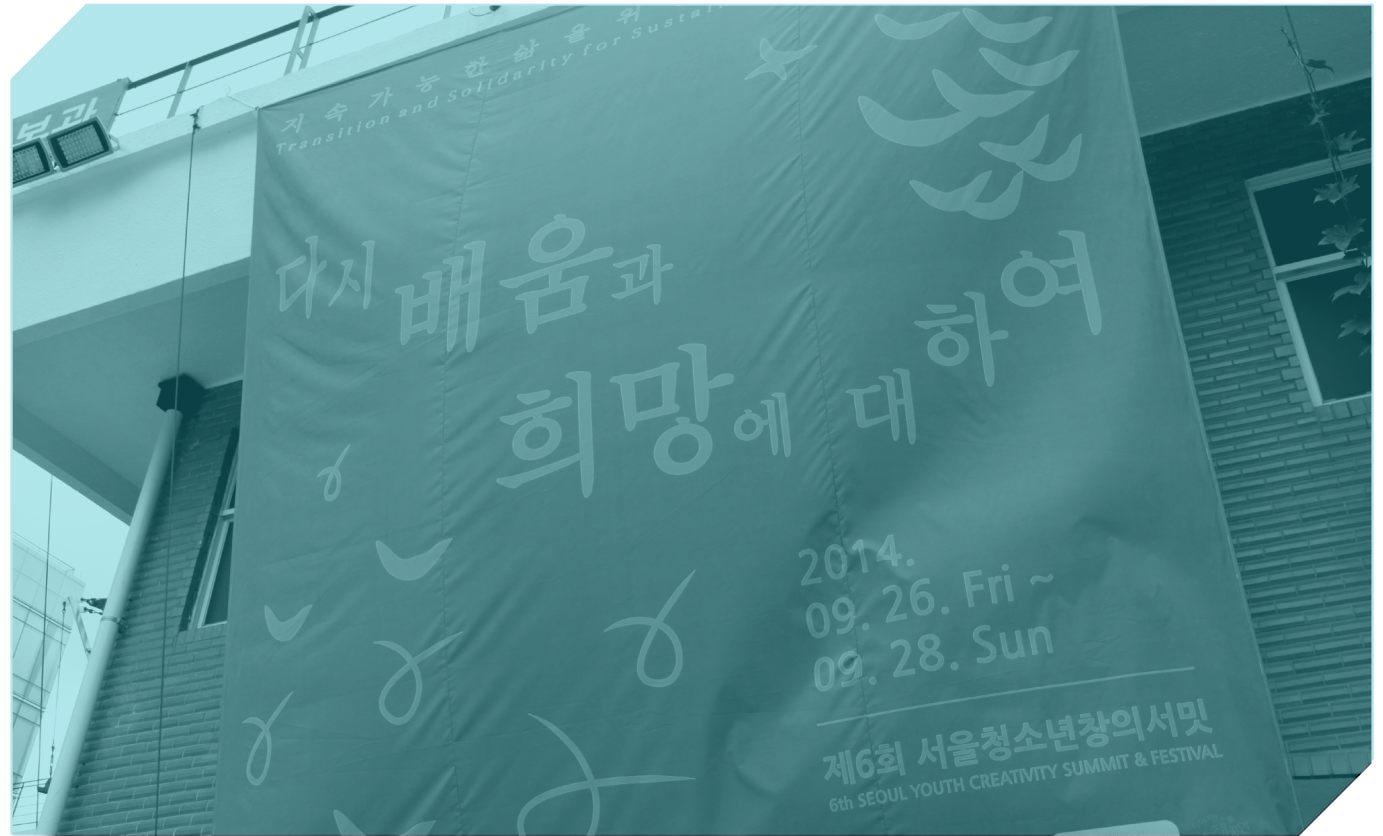
글 | 최은주(거품, 학교운영팀)

하자 하자센터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9월 28일 · 수정됨

[리얼타임그래퍼]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창의서밋이 9월 28일 오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해주셨던 손님들은 앞으로 하자의 단골로 꾸준히 만났으면 해요 ☺ 차후 창의서밋 보고서/각종 영상/녹취록 등이 정리됩니다.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던 분들은 기다려주세요.

리얼타임그래퍼는 이제 작별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은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는. 다음에 또 만나요!!



편집 | 이지현
디자인 | 오혜리
퍼낸곳 | 하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02-2677-9200
www.haja.net
<http://jagongong.net>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6th SEOUL YOUTH CREATIVITY SUMMIT & FESTIVAL

